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9063.84	↓ 코스닥	1000.93
	(+199.60)		(-31.03)
↑ 금리 (연이자율)	3.750	↑ 환율 (원/달러)	1529.85
	(+0.040)		(+16.45)

# metro® 경제

노란봉투법 3개월  
하청노조 1137곳  
교섭 요구  
02

## 세계 사로잡은 K-푸드 지속가능 성장 청사진

###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지식과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메트로경제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2026 푸드 이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 고유의 맛과 건강한 식문화를 담아 전 세계 시장과 식탁을 사로잡은 국내 식품 기업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외연 확장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L7·L8>

메트로경제, 식품산업 현재 진단 2030년 수출 210억 〃 달성 목표 제품발굴, 콘텐츠 융합 마케팅 추진 글로벌 교육기관 '수라학교' 설립 장기적 수출인재·인프라 조성 계획

최근 K-푸드의 글로벌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전통적인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중국·일본을 넘어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까지 전 세계 208개국으로 수출길이 넓어졌으며, 라면과 소스류는 물론 신선 농축산물과 수산물까지 품목도 한층 다양해졌다. 특히 농식품 수출은 10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난해 137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금의 성장세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한식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산업'으로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문제의식이 전면에 제기됐다.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만큼 한식'에 대한 무거운 문제의식이 전면에 제기됐다.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만큼 한식'에 대한 무거운 문제의식이 전면에 제기됐다.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만큼 한식'에 대한 무거운 문제의식이 전면에 제기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K-푸드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에 힘입어 올해는 수출 160억 달러 돌파라는 도전적 목표를 향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단상에 선 유재형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은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 K-푸드 수출 21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정통성과 매력을 겸비한 제품 발굴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한곳에서 해결하는 윈윈 지원 허브 가동 ▲K-콘텐츠 및 관광과의 융복합 마케팅 ▲AI·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 ▲중동·유럽 등 유망 시장 다변화가 핵심이다. 아울러 프랑스의 '브 코르동 블루' 같은 세계적 플랫폼 역할을 할 글로벌 한식 대표 교육기관인 '수라학교'를 설립해 장기적인 수출 인재 인프라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합동 K-푸드 수출 기확단을 중심으로 신규 유망 시장을 개척하고, 스마트 수출 전문 단지 확대 및 첨단 푸드테크 접목을 통해 식품 제조업의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발표에서 박수영 해수부 수출기공진흥과 사무관은 "올해 수산식품 수출액 35억 달러, 김 수출 12억 50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외해 양식 및 육상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2027년까지 AI 기반 마린김 등급제를 시범 도입해 국제 마린김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K-김(K-GIM)' 영문 명칭 확산 등을 통해 글로벌 비관세 장벽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은 정부의 정책적 마스터플랜과 함께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성공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총망라하며 K-푸드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통찰과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이 'K-food,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유재형 식품외식산업과장이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최규훈 기자 ch9720@metroseoul.co.kr>



코스피가 사상 첫 9000을 돌파하며 한국 자본시장 역사를 새로 썼다.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하나인피니티서울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9000 돌파 기념 타종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뉴스 /뉴스>

## 코스피, 9000 돌파... 삼전·하닉 강세 지속

코스피 9063.84 마감... 2.25% ↑ 올해 110% 올라, 세계 주요지수 1위 삼전·하이닉스 시총비중 54% 차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어섰다. 그러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코스피가 1000포인트씩 오를 때마다 두 종목이 시총액(시총)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반도체 대형주만 질주하는 'K자형 증시'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보다 2.25% 오른 9063.84에 마감했다. <관련기사 3면>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27일 4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월 22일 5000선, 2월 25일 6000선, 지난달 6일과 15일에는 각각 7000선과 8000선을 넘어선 바 있다. 1000 마디선씩 넘는 기간을 살펴보면 4000에서

5000까지 87일, 이후 6000까지 34일, 7000까지 70일, 8000까지 9일이 걸렸다.

연초 이후 코스피는 전 거래일까지 110%가량 오르며 전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이 11.96%, S&P 500이 8.39%, 다우존스가 7.13%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가히 압도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표주가 코스피를 9000선으로 이끌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6.51% 오른 268만 5000원에 마감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4.62% 오른 36만 2500원에 거래되며 강세를 이어갔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40%로 절반을 웃돈다.

코스피의 올해 전망치를 '1만회'(코스피 1만)로 제시하는 증권사도 늘어나고 있다. JP모건·모건스탠리·노무라증권 역

시 코스피 지수가 1만포인트를 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AI 산업 성장을 지탱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게 이런 전망의 주요 근거다. 정창원 노무라 아시아 리서치 공동대표는 "투자자들은 메모리 가격이 수직상승 후 완만해지면 팔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가 끌고 가는 메모리 수요는 5년간 1만, 2만배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 종목은 791개로, 상승 종목 109개의 7.26배에 달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美 기준금리 동결... 점도표는 '매파' 전환

연준, 경기전망 낮추고 물가전망 상향한은 금통위, 금리인상 필요성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점도표와 물가 전망을 통해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켰다. 한국은행도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의 신호로 평가하면서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 논의는 인하보다 인상 필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 따르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표결은 12대 0 민정일치였다. 겉으로는 시장 예상에 부합한 동결이었지만, 성명서와 경제전망,

점도표를 종합하면 내용은 비둘기파(통화 완화정책 선호)적이지 않았다.

◆ 물가가 끌어 올린 점도표 연준은 성명서에서 중동 분쟁 등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미국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자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고용 증가도 노동력 증가 속도와 부합한다고 봤다. 반면 물가는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분의 공급 충격 영향으로 2% 목표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핵심은 경제전망이다. 연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월 2.4%에서 2.2%로 낮췄

지만,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전망은 2.7%에서 3.6%로 대폭 올랐다. 근원 PCE 전망도 2.7%에서 3.3%로 상향했다. 경기 전망은 낮추면서도 물가 전망을 크게 끌어올린 셈이다.

금리 경로 역시 위로 이동했다. 점도표 상 올해 말 정책금리 전망 중간값은 3월 3.4%에서 6월 3.8%로 높아졌다. 2027년 말 전망도 3.1%에서 3.6%, 2028년 말 전망도 3.1%에서 3.4%로 상향했다. 한은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점도표를 제출한 18명의 위원 중 9명이 올해 25bp(1bp=0.01%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25bp 인상 전망이 3명, 50bp 인상 전망이 5명, 75bp 인상 전망이 1명이다. <8면에 계속>

### 메트로 한줄뉴스



▲홍준표 "빈대정치를 하고 있는 것"... '대안과미래' 장동혁 퇴진 여론에 비판 <사진 뉴스>  
▲국힘, 11개 지역 선거소청 제기... "유권자 참정권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실 명백"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금품까지 받은 경찰 구속송치  
▲한동훈 집 앞에 흥기 둔 40대...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美서 수입 중단까지" 광주·전남 노동단체, 영전 노동착취 대책 촉구  
▲내달부터 '방문 도로연수' 광고도 처벌... 알선 행위 단속

# 하청노조 1137곳 교섭 요구... 車·조선 등 산업현장 '진통'

##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주요기업 잇달아 사용자성 판정 실제 교섭·노동쟁의 단계 진입 원청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조짐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산업계 노사관계에 새로운 '트리거(trigger,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흐름이 산업 현장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의 원·하청 교섭을 전제로 한 사용자성 판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 구조였다면 앞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 초기업·원청교섭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로는 실제 교섭과 노동쟁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의 급식·시설

관리 도급업체인 웰리브지회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웰리브지회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한화오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논의가 기존 생산 공정을 넘어 급식·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도 이르면 올해부터 하청 노조 3곳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가 포스코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을 유지했다. 초심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건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다. 경북지노위는 4월 8일 포스코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등 하청 노조 3곳과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판정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도 하청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한국연합플랜트노동조합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미이행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GM 하청 업체 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GM에 단체교섭을 요구 중인 노조는 한국GM부품비정규직지회(더원테크·엘림비엠에스·비원테크), GM부품불류지회(경륜로지스틱), 부평공단지회(디지에프 오토모티브) 등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제조업 전반으로 확

산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이후 이달 초까지 하청노조 1137곳이 원청 43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관련 조합원 수만 16만 명에 달하며 중노위는 이에 대한 판단 여부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며 사용자범위와 교섭의제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 원청이 사용자성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협력사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기존 아웃소싱(외주, 외부조달) 체제를 인소싱(내부조달)으로 바꾸는 등 구조조정 가속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축소와 투자 유보, 생산기지 해외 이전 같은 현실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노조법 개정이 자칫 기업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불안도 확산되는 분위기다"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화성특례시의회

민심은 의회로 시의회는 민의관

# 화성특례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일시 | 2026. 6. 19.(금) ~ 6. 26.(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화성특례시의회는 늘 107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 1년새 해외증권투자 2배 ↑

한은 환율 상승압력 작용 분석 "투자소득 환류 기반 확충 필요"

우리나라의 해외증권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은 환율 하락 요인이지만, 해당 소득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유보·재투자될 경우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해외투자자와 투자소득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412억달러로 2024년 497억달러보다 감소했다. 반면 해외 증권투자는 1403억달러로 2024년 670억달러의 2배를 웃돌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 증권투자 비율도 2024년 3.6%에서 2025년 7.5%로 상승했다.

해외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대외자산 축적과 투자소득 확충에 기여한다. 외화유

동성 완충력과 대외지급능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투자소득이 실제 외환시장으로 얼마나 환류되느냐다. 해외 직접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 국내로 배당·송금되지 않고 현지에 유보되거나 재투자되면 통계상 투자소득 흑자와 실제 외화 유입 규모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보고서는 향후 외환수급 점검 체계를 투자소득의 실제 환류 여부 중심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신상호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 과장과 이주현 조사역은 "투자소득 증가는 대외지급능력을 보완하는 완충장치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가 국내 성장기반 강화나 환율 안정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환율 안정은 투자소득의 환류 기반 확충과 국내 성장잠재력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 석유 최고가격 동결... 손실보전 기준 마련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체의 손실보전 기준을 철저하게 '실제 지출된 원가' 중심으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을 근거로 한 '석유관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지원금 산정의 바탕이 되는 원가는 최고가격 적용 기간 중 투입된 ▲원유도입비용(원유·석유제품 구입비, 운송비, 보험료, 부대비용) ▲생산 및 판매비용(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기타 관련 비용을 합산해 구

정했다. 원가 산정은 각 정유사별 개별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정유업체의 평균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이 내로 구성되며, 원가 산정의 적정성 평가와 적정 마진 결정, 신청 서류 검증,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액수 심의 등을 총괄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중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코스피 1만 앞둔 '불장'... 예·적금서 증시로 가계자금 대이동

예금 비중 줄고 증시 대기자금 확대  
투자자예탁금 124조대 안팎 유지  
빚투 잔고도 37조 수준으로 붙어  
'반도체 착시' 경계감 갈수록 커져



Chat GPT로 생성한 '예·적금 이탈 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관련 이미지.

“코스피 목표지수를 1만1000으로 보더라도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3.5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9배 수준이다. 다만, 일본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박세영 노무라증권 한국 리서치본부장)

“자본시장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 등이 코스피를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캐서린 오 모건스탠리 아시아 한국-대만 수석 이코노미스트)

코스피 1만 시대가 코앞이다. 증시 활황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북돋워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란 게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반도체의 독주가 실물경제와 주가 상승을 이끄는 상황이라 이른바 '반도체 착시'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는 형국이다. 실물경제와 괴리된 증시의 랠리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와 근로소득자 간의 격차를 더욱 키위 구조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자본시장에 흘러든 돈을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가게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증시에서 번 돈 부동산으로

'불장'에 증시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금융자산에서 현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3%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비중은 2023년 약 45%대 중반에서 2024년 46% 안팎까지

상승하며 정점을 형성한 바 있다. 불과 1년 사이 3% 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으로, 주식·펀드 등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40% 붕괴가 시간문제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지난 4월 통화량이 단기 금융상품과 기업 예금을 중심으로 25조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평균 광의통화량(M2 기준·평균)은 4153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5조3000억원(0.6%) 증가했다. 지난 1월(27조7000억원) 이래 최대 폭 증가하며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시 활황으로 단기 대기성 자금이 불어나며 머니마켓펀드(MMF)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코스피 7000선에 이어 8000선, 9000선을 넘어지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가 7000선을 기록한 지난 5월 6일 기준으로 주식 투자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사상 첫 130조원(130조7433억원)을 넘어섰다. 사상 첫 8000선(중가 기준)을 찍은 5월 26일에도 124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124조원대를 기록 중이다. 이른바 '빚투' '빚내서 투

자'인 신용융자 잔고는 같은 날 37조대로 붙어났다.

하지만 그림자도 있다. 바로 양극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산 상위 20%(최상위 5분위)가 전체 주식의 73%를 갖고 있다. 잘사는 사람이 더 잘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 대부분은 잔치 구경하는 신세다.

주식 투자 차익의 종착역도 부동산이다.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주식 자산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보면 무주택 가계

는 주식 자본이득의 70%를 부동산 자산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됐다.

### ◆생산적 금융으로 'K자형' 양극화 극복해야 '1만 시대' 열려

코스피 '1만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자 걱정도 커졌다. 한국경제의 'K자형' 양극화가 대표적이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의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5.2배에 불과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PER은 15.3배에 달한다. 반도체는 실적 개선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다. 산업 지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 대비 14.1%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5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3.4% 증가한 878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액(372억9000만 달러)이 1년 전보다 167.7%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성장과 수출,

주가가 모두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한 산업이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자본의 물줄기를 바꾸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중의 막대한 유동성을 부동산이나 가상자산 같은 비생산적인 자산시장보다는 기술 R&D, 혁신 스타트업 육성, 산업 설비 고도화 등 실질적인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영역으로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려면 코스피도 '1만회' 시대를 열 수 있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생산적 금융'의 과제는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부동산과 담보대출을 넘어 혁신기업과 장기투자자로 흐르게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공정위,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최혜대우·끼워팔기 의혹 심의

배민·쿠팡이츠 자진시정 제동  
상생안 대신 정식 심의 절차로  
시민단체 “환영”·소상공인 “유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자진시정안(동의의결) 신청을 끝내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 대기업의 '최혜대우 요구' 등 독과점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예고하는 정식 본안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불공정 행위 근절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와 즉각적인 피해 구제를 원했던 일부 소상공인 단체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8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안을 모두 기각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사태의 핵심 불공정 쟁점은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 관행과 '끼워팔기' 의혹이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 앱보다 음식 가격을 낮추거나 가게 설정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최혜대우 요구는 점주의 가격

결정 자율권을 침해하고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독과점 남용 행위로 꼽힌다. 여기에 쿠팡이츠는 막강한 로켓와우 멤버십 독점력을 활용해 배달 서비스와 OTT(쿠팡플레이)를 묶어 파는 '끼워팔기'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역대 최대인 3000억 원 규모, 쿠팡이츠는 6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기각한 뒤 시민사회와 소상공인 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결정을 환영했다.

특히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와우 멤버십과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를 결합 판매하면서도 시정안에서는 핵심 의혹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별개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년 뒤 과징금이 아니라 당장의 비용 절감과 지원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 신뢰의 100년 약속의 100년

신뢰로 쌓아온 100년 위에 책임을 더해,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  
다음 100년을 향한 유한양행의 약속입니다.



# “AX, 최우선 과제”... 100년 제조 내공, ‘AI’로 다시 쓴다

## ⑦ 두산그룹 **DOOSAN**

두산그룹이 100여 년간 쌓아온 중후장대 제조 역량을 무기로 ‘인공지능(AI) 제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치솟고 산업 현장의 자동화 요구가 커지면서 발전설비와 건설기계를 만들던 두산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서다. 박정원 회장은 올해 AI 전환(AX)을 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발전기자재와 건설기계, 로봇, 전자소재 등 주력 사업에 AI를 입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데 그룹 역량을 모으고 있다.

### ◆ 박정원의 피지컬AI 승부수... AI 팩토리

박 회장은 신년사에서 AI를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가 곧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두산이 발전기자재와 건설기계, 로봇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제조 역량과 방대한 하드웨어 데이터를 갖춘 만큼, AI가 실물 장비와 결합하는 ‘피지컬AI’ 시대를 앞서갈 수 있다고 봤다.

### 두산에너지빌, 전력 인프라 수요 대응 SMR·가스터빈 등 중심 수주 확대

두산퓨얼셀과 발전설비 등 협력 확대

두산의 방향은 AI 팩토리 시장 확대에도 맞물려 있다. AI 팩토리는 AI 모델을 학습·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 서버, 냉각 설비, 로봇, 산업 장비가 결합된 산업 생태계다. 엔비디아가 GPU 공급을 넘어 AI 팩토리 구축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두산은 발전기자재 계열사 두산에너지빌리티, 건설기계 계열사 두산팍켓, 로봇 계열사 두산로보틱스, (주)두산 전자소재 사업을 통해 전력·첨단소재·로보틱스·산업장비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 ◆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 원전·가스터빈·연료전지 기회

두산에너지빌리티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커지는 전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계열사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면서 발전설비를 공급하는 두산에너지빌리티의 사업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해 신규 수주 14조728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수주 확대는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가스터빈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기 실적을 뒷받침하는 분야는 가스터빈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북미 가스터빈 수주와 복합화력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수주잔고를 늘리고 있다. 전력 수요 증가로 글로벌 발전기자재 시장에서 공급 역량을 갖춘 기업의 협상력이 커지는 점도 긍정적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가스터빈을 통해 단기 전력 수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 3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콘엑스포 2026’ 현장을 찾아 두산팍켓의 미니트랙로더에 직접 탑승해 스킷 박 두산팍켓 부회장(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두산그룹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제작하는 스팀터빈. /두산에너지빌리티



‘CES 2026 혁신상’에서 AI 부문 최고혁신상과 로봇공학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스캔앤고’ 이미지. /두산로보틱스

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형 원전과 SMR을 중장기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다. 올해 에너지빌리티 부문 수주 목표는 13조3000억원이다.

원전 사업에서는 한미 협력이 기회로 꼽힌다. 미국이 원전 건설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핵심 기자재 공급망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 한국 기업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핵심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 웨스팅하우스 AP1000용 기자재와 테라파워 나트륨 SMR 부품 등 해외 원전·SMR 프로젝트에서도 공급 기회를 넓히고 있다.

에너지 솔루션 협력도 넓어지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두산퓨얼셀은 엔비디아의 AI 팩토리 플랫폼과 연계해 전력 공급 설계, 발전설비 효율화, 저탄소 전원 확보 등에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전력 공급과 에너지 효율 관리가 함께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발전설비와 연료전지 사업도 AI 인프라 확장과

### ◆ 로봇·전자소재·산업장비로 확장... 수익성 입증은 과제

로봇 계열사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단품 판매에서 벗어나 AI 기반 지능형 솔루션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엔비디아와 AI·로보틱스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AI 기술을 자사 에이전틱 로봇 운영체제에 적용해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2027년에는 에이전틱 로봇 운영체제 기반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2028년에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매출 성장세는 뚜렷하지만 수익성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다. 두산로보틱스는 올해 1분기 매출 15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9.7% 증가했지만 선행 투자 비용이 늘

면서 적자를 이어갔다. 협동로봇 단품 판매만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두산로보틱

스는 AI 로봇 기반 솔루션과 고부가 서비스로 사업 구조를 바꾸며 흑자 전환 기만을 다지고 있다.

전자소재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대와 연결된다. (주)두산은 인화회로기판(PCB)의 핵심 소재인 동박적층판(CCL)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사는 엔비디아의 MGX 플랫폼 등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AI가 속기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고속 신호 전송을 뒷받침하는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주)두산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태국에 약 1800억원을 들여 AI 인프라·네트워크 장비용 고성능 CCL 공장을 짓기로 했다.

건설기계 계열사 두산팍켓도 피지컬AI 전략의 적용 대상이다. 두산팍켓은 건설·농업·조경 장비에 엔비디아의 피지컬AI 기술을 접목해 장비의 자율성과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 장비가 작업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두산의 AI 전환 전략은 계열사별 성장 기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익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확산으로 전력과 자동화 수요가 동시에 커지면서 제조 기업의 경쟁력도 단순 설비 공급을 넘어 AI를 결합한 솔루션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두산이 강점인 제조력을 AI와 얼마나 매끄럽게 잇느냐, 성장성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앞으로 기업 가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왼쪽부터)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전승환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이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 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금융이 해야 할 일 국민의 내일을 키우는 일

재산은 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쓰는 것

세상을 키우는 것이 금융의 의미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

백 년 전 경주 최부자의 철학처럼  
KB가 세상을 키우는 생산적 금융에 앞장섭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드는 산업에  
금융을 연결하고,  
더 많은 가능성과 일자리가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

대한민국의 내일이 자라는 곳마다  
KB의 생산적 금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금융주선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금융주선

KB국민행복  
성장·희망  
프로젝트  
영상 시청하기



## KB국민행복 성장 프로젝트 [KB의 생산적 금융]



###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금융주선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 사업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 KB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결성

첨단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1,600억 원 규모 펀드를 결성하여  
차세대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금융주선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지 에너지 사업의  
금융주선 사업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총 110조 원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과 서민 취약 계층을 동시에 지원하며 '미래산업 육성'과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

# 벨기에와 에너지 협력 논의... EU와 경제·안보 협력 공고히

**李, 9박10일 유럽순방 마쳐**  
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격상  
교황청서 한반도 평화 지지 요청  
"한국과 유럽 양자관계 심화 넘어  
공동가치 중심 해법 모색 과정"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9박10일 간의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첫 유럽 순방을 통해 협력 확장 및 중동·공급망 등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북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유럽 연합(EU)과의 경제·안보 협력들을 공고히했다는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은 첫 유럽 순방 기간 벨기에·EU·이탈리아 정상 및 레오 14세 교황과 순차적으로 만나 경제·안보·국제평화 관련 협력 방안 논의에 집중했다. 또 G7에 선 국제연대 및 AI 시대 과제 등을 언급하며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바르트 웨브흐 총리와 벨기에 정상 회담에선 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강화하고, 양국이 상호 해외 진출 거점 역할을 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EU 정상회담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EU의 철강·탄소 규제가 우리 기업들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EU 측에서 요청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EU 측이 브뤼셀 방문을 초청해왔다. 최근 다자주의가 퇴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EU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탈리아 국빈 방문에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중장기 협력 계획을 채택했다. 현 정부 들어 G7 국가와 관계 격상은 지난 4월에 한-프랑스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

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탈리아 측은 이 대통령에게 최고등급 훈장인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우리 정상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취임 후 처음 방문한 바티칸에서는 교황청에 한반도 평화 지지를 요청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교황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과 우리정부의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교황청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계기 레오 14세의 방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이번 벨기에·EU·이탈리아 순방에 대해 "이번 유럽순방은 현재의 문제와 함께 미래 협력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며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비전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이 유럽과 양자 관계 심화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유럽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은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레뱅(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G7에 2년 연속 참석한 이 대통령은 국제연대와 공급망 협력, AI 시대 대응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독일·캐나다·캐나다 등과 양자 회담을 가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만나 중동 정세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G7 참석을 통해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2년 연속 G7에 초청받은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또 AI, 개발, 보건 등 글로벌 의제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 동참하며 의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IEA(국제에너지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글로벌 에너지 안보 체계를 활용해 아시아 내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주도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통과

**국조특위, 8월1일까지 45일간 활동**  
부족사태 발생 경위·사후조치 등 조사  
민주 9명, 국힘 7명 등 총 18명 구성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부터 8월1일까지 45일간 활동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여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서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무소속 최희진 의원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

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사태 발생 당일 선거관리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거관리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 투표 지연 등의 참정권 침해 실태, 투표함 반출 지연 등 선거 행정 공백 사태, 투·개표소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등도 조사 범위에 들어 있다.

국조특위는 사태 발생과 사후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의 직무유기 등 책임을 규명하고, 시스템 전면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으로, 조사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총 18명이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제안 설명회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참정권 침해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전면적인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 '90분 대화' 李-트럼프 韓美 '후속협약'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를 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향후 한미 간 후속협약이 있을 지 주목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해결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또 같은날 이 대통령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90분 간 한반도 평화와 한미 관계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는 양 정상의 자리 배치가 옆자리인 점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17일 엑스(X·옛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소식을 전하며 서명용 펜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부부 동반 골프 약속을 했다면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미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 장동혁 사퇴론에 "가을 전 임기 종료"

**野 지도부, 사퇴론 두고 또 공개충돌**  
정점식 "李 정권 폭주 견제 장 돼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두고 1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다시 한번 공개 충돌이 일어났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장동혁 대표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장 대표는 선거위 개혁과 특검법 추진에 먼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버티는 중이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에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또 "지난 월요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시한 걸로 안다"며 사비로 태국 출장을 다녀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 출장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선거 기간 중 지도부가 미국에 다녀왔는데 어떤 비용으로 갔는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아직까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광한 최고위원은 우 최고위원 발언 후 "우리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를 잡

는 게 몹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회의 마지막에 우 최고위원을 겨냥해 "최고위원회의는 의원총회가 아니다. 이곳에서는 당 지도부의 정제된 의견이 나가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회의 전 비공개회의에서도 우 최고위원은 선거위 사태 마무리 이후, 가을 전 임기 종료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장 대표는 우 최고위원에게 "청년 정치인으로서 당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청년 정치인도 당 내부 비판에 대한 목소

리만 언론에 많이 나오는 모습보다는 정말 묵숨 걸고 투쟁해야 하는 특검법 수용을 위한 노력, 선거위 개혁 등에 대한 목소리를 먼저 내준다면 국민과 당원들에게 울림 있는 목소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참정권 침해 상태에서 어떤 조건을 달고(퇴진) 해주시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고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목소리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최고위원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 발언에 대해 "(장 대표가) 답을 주지는 않았다"며 "선거위 사태와 싸우고 그다음에 차라리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KT가 광장을 바꿉니다

5천만 국민이 하나되어 응원할  
커다란 무대로

모두의 뜨거운 진심이  
지구 반대편 태극전사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6월,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을 26년간 공식 후원해 온  
KT가 태극전사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응원을

AX Platform Company kt

힘찬 응원하고 짝찬 혜택 받으세요(6.5~7.19)

- KT 매장 방문하면, 한정판 굿즈 선착순 증정
- KT 상품 가입하면, 국대급 경품 추첨 제공



# “여름 성수기 잡아라”... 카드사 ‘공항 라운지’ 혜택 다채

## 삼성 ‘스카이패스’

연 2회 인천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현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  
글로벌 연 10회 무료, 리무진 혜택  
현대 ‘씨밋’ 세계 1000곳 무료이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공항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단순 항공 마일리지 적립을 넘어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까지 고객 수요가 쏠리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그릴라가 집계한 공항 라운지 카드 상위 10개 순위를 살펴보면 기업형 카드사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삼성카드 ‘삼성카드&마일리지 플래티넘(이하 스카이패스)’ 카드가 1위를 차지했다.



해외 여행이 늘면서 공항 라운지 신용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뉴시스

삼성 스카이패스 카드는 연 2회 인천공항 마티나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기준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30만원 이상일 경우 이용 가능하다. 단, 발급 월을 포함해 최초 2개월은 이용금액 관계없이 라운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위는 ‘현대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 카드 에디션2’다. 전월 이용금액 조건 충족 시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연 10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항 리무진·철도 티켓도 연 12회 무료로 제공한다.

3·4위는 삼성카드 ‘디아이드 퍼스트’, 현대카드 ‘현대카드 씨밋’이다. 디아이드

퍼스트는 연 3회 본인 및 동반인을 포함해 국내외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 씨밋은 전 세계 1000여 개 공항 라운지를 대상으로 연 5회 무료 이용 혜택을 지급한다.

5위는 ‘삼성카드 아이디 글로벌 카드’로 집계됐다. 역시 본인 한정 국내외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이 연 2회 무료로 제공된다. 6위는 현대카드의 ‘대한항공카드 더 퍼스트 에디션2’다. 전월 이용금액 조건 충족 시 공항 라운지를 횡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순위에는 우리카드 ‘우리카드 마일&포인트’, NH농협카드 ‘올바른 플렉스카드’, 현대카드 ‘대한항공 300’, 하나카드 ‘제이드 클래식’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카드사들은 카드 매수를 넓히는 반면 기업형 카드사들은 프리미엄 혜택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기업형 카드를 중심으로 휴가철과 맞물려 항공사 제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등 혜택이 집중되는 측면

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항 라운지 이용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조사업체인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올해 세계 공항 라운지 시장을 63억90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산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프리미엄 여행 경험을 추구하는 고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공항 라운지에 대한 인식 변화도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과거 상위층만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여행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

한 공항 이용객은 “공항 라운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옛날 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가철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공항라운지 이용권 거래가 꽤 빈번하게 올라 온다”고 말했다.

/안재진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 6%대 고금리로 ‘눈덩이 신용대출’ 막는다

### 5대 은행 신용대출 보름새 1조 증가 주담대 금리도 최대 7.32% ‘상승세’

증시 활황속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요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보름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났다. 은행들은 마이너스 대출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조정하는 등 자율규제에 나선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3445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1조3536억원 늘었다.

지난달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5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2조1741억원)으로 늘었는데, 이달 들어서도 보름 새 잔액이 급증하며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잔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3년 8월(104조4171억원)이후 최대치다.

문제는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장금리까지 오르면서



증시활황으로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뉴시스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AAA) 금리는 4월 초 3.182%에서 지난 17일 3.572%로 0.39%포인트(p) 상승했다.

여기에 은행들은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주요 신용대출 금리는 4.16~6.47%로 일주일 전보다 금리 하단은 0.23%p 내렸지만 금리 상단은 0.39%포인트 올랐다.

주담대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

출 금리 상단은 4.57~7.32%로 집계됐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 주담대 금리 상단은 8%, 신용대출 금리는 7%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조이기 위해 한도도 제한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일반대출의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마이너스통장의 최대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신한은행은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통장 중 약정기간 및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 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는 만기 연장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감액한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에 더해 은행권의 한도 축소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차주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증시 상승세에 따라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은행권의 대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국토부, AI로 중개 담합·전세사기 잡는다

### 부동산서비스산업 5개년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5년 정책 방향을 내놨다.

국토부는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혁신하고, 불투명한 시장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경기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토부는 디

지탈 기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향후 5년 비전으로 정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이 플랫폼은 부동산 개발, 공급, 거래, 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지난 1월부터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돼 누구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향후 오픈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오픈 API는 민간 기업이나 개발자가 플랫폼 데이터를 외부 서비스에 연동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창구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프롭테크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준 충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기업 실적과 서비스 품질 등을 따져 우수 업체를 선별하는 ‘선정제’로 바뀐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전통 부동산서비스업종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업 정보의 객관성도 높일 방침이다.

/성재리 인턴기자 cr56@

## 동탄 ‘셔세권’ 주간 아파트값 2%대 급등

매매지수 0.10%, 전세지수 0.11% ↑

반도체 호황에 경기 화성시 동탄의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이 각광을 받는 가운데 규제 지정 회피와 교통 호재가 맞물리며 한 주간에만 2%가 넘게 올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0.10%, 전세가격지수는 0.11% 상승했다.

전국 최고 상승률은 전주에 이어 동탄이다.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2.22% 급등했다. 동탄은 6월 첫째주 0.60%를 기록한 데 이어 둘째주 1.98%로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으며, 셋째주는 2%대를 웃돌았다. 연초 이후 누적 상승률은

9.5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셔세권으로 꼽히는 용인 수지(9.03%)와 성남 분당(7.40%), 용인 기흥(5.99%), 수원 영통(5.72%) 등도 올해 집값이 크게 뛰었다.

수도권 전세로는 0.20% 올랐다.

서울은 전주와 같이 0.27%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성북구(0.40%)는 중앙·길음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도봉구(0.38%)는 창·방학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남에서는 강남구(0.31%)는 압구정·역삼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28%)는 잠실·방이동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관광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역세권 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

## 연준의 무게중심 인하→동결·인상 전환

▶▶ 1면 ‘美 기준금리 동결...’서 계속

핵심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연준 내부의 정책 무게중심이 인하에서 동결 장기화 또는 추가 인상 가능성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성장률을 낮추면서도 물가와 금리 경로를 동시에 끌어올린 것은 연준이 경기 둔화보다 물가 재상승 위험을 더 큰 정책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체제의 첫 FOMC 라는 점도 시장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정책결정문에서는 향후 정책 경로를 시사하는 포워드 가이드 문구가 삭제됐고, 워시 의장은 본인의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점도표를 포함한 연준의 소통 방식 전반도 재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앞으로 시장은 연준의 명시적 안내보다 물가와 고용 등 실제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 ◆한은도 긴축 압박권

국제금융시장은 이번 FOMC를 매파적

으로 받아들였다. 한은 시장상황 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이란 종전 기대감이 이어졌음에도 미국채 금리는 단기물 중심으로 큰 폭 상승(채권값 하락)했다. 미국 채 2년물 금리는 13bp 오른 4.18%, 10년 물은 5bp 오른 4.49%를 기록했다. 달러화 지수는 0.9% 오른 100.39를 나타냈고, S&P500은 1.2% 하락했다.

한은은 이번 FOMC를 글로벌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 신호로 해석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이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에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주요국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통화정책에도 부담이 커졌다. 한은은 이미 지난 5월 금통위의 사록에서 물가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 SK하이닉스, HBM4E 12단 샘플 공급... “적기 양산 만전”

HBM 제품 ‘고객 맞춤형’ 차별화 양산 목표시점은 공개하지 않아 안현 사장 “기술 리더십 공고히”



SK하이닉스 HBM4E.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7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E)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다. 출하 시점을 다루던 HBM 경쟁이 HBM4E를 기점으로 고객 요구에 맞춘 맞춤형(커스텀) 승부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18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인공지능(AI)용 초고성능 D램 신제품인 HBM4E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들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축적해온 HBM 선행 개발 역량과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HBM4E 12단 샘플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다”며 “핵심 고객사와 긴밀히 협업해 적기 양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HBM4E 샘플을 올해 하반기

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당시 언급은 전망 수준이었으며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시점에 샘플 공급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산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HBM4E는 고객 맞춤형 제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SK하이닉스는 HBM4E가 커스텀 제품인 만큼 고객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HBM4E와 HBM5를 고객 요구에 맞춘 커스텀 HBM 중심 세대로 분류했다.

이번 제품은 전작인 HBM4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였다. 핀당 최대 16Gbps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구현했고 에너지 효율은 20% 이상 개선했다. 칩을 적층한 뒤 칩 사이 공간에 액체 형태의 보호재를 주입해 굳히는 어드밴스드(Advanced) MR-MUF 공정을 적용해 12단 적층 기준 48GB 용량을 구현했다. 열 저항은 HBM4 대비 약 17% 낮춰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안정성을 높였다.

커스텀 HBM 경쟁에서는 코어 다이와 베이스 다이를 어떤 공정으로 구성하느냐가 변수로 꼽힌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HBM4E 코어다이에 HBM4(1b)보다 진전된 1c D램 공정을 적용하고, 베이스 다이는 TSMC 3나노 공정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도 TSMC에 HBM4E 베이스 다이 생산을 맡겨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D램 공정을 유지하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HBM 수요는

2026년 전년 대비 77%, 2027년에는 6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HBM4E는 2027년 전체 HBM 수요의 약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업계 최초로 HBM4E 12단 샘플 출하를 발표했다. HBM4E와 HBM5가 커스텀 HBM 중심 세대로 전환되면서 향후 경쟁은 고객 요구를 반영한 설계와 성능 검증, 안정적인 공급 역량 확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그동안 쌓아온 업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과 양산 역량을 HBM4E 제품에서도 이어가 AI 혁신을 지속적으로 리드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파트너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가치를 선제적으로 구현해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서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



삼성전자 모델들이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A37 5G’를 소개하는 모습. /삼성전자

## 삼성전자 ‘갤럭시 A37 5G’ 출시

삼성전자가 대용량 배터리와 AI 기능, 대화면을 갖춘 보급형 스마트폰을 국내 출시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을 적용하면 체감 가격은 40만 원대로 내려간다.

17일 삼성전자는 ‘갤럭시 A37 5G’를 오는 19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출고가 59만 8400원이다. 색상은 어썸 라벤다·어썸 화이트·어썸 차콜 3종으로 출시되며 전국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 이동통신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A37 5G’는 어썸 인텔리전스 AI 기능과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일상 속 사용자 경험을 강화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비자들이 갤럭시 AI와 모바일 혁신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 넥스트라이즈 2026

### 대한항공 3대 미래 항공기술 선봬

대한항공은 18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넥스트라이즈 2026에 참가해 벤처·중소기업과의 기술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래 도심항공교통의 핵심인 지능형 관제, 미래 전투체계 기반인 자율형 조종, 스마트 MRO 등 3대 미래 항공 기술을 선보인다.

대한항공은 관람객들이 미래 항공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ACROSS 관제 영상을 구현한 LED 타워와 실제 장비를 전시한다. 부스 방문객을 위한 대한항공 키링 제작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 포스코인터, ‘PT.PAR’ 출범... 글로벌 식량사업 박차

삼푸르나 아그로 인수 후 통합 완료 CI 공개... 팜 사업 영업익 2배 목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팜 사업 재편을 마무리하고 식량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인수한 삼푸르나 아그로를 PT.PAR(Prime Agri Resources)로 새롭게 출범시키며 종자 개발부터 농장 운영, 정제사업까지 이어지는 팜 밸류체인을 강화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래플스 호텔에서 PT.PAR 신규 기업 아이덴티티(CI)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PT.PAR의 신규 CI는 팜나무를 형상화한 심볼과 연결된 곡선 디자인을 활용했다.

PT.PAR은 지난해 경영권을 확보한 인도네시아 팜 기업 삼푸르나 아그로의 새 사명이다. 올해 1월 현지 법적 절차를 마치고 공식 사명을 확정된 뒤 이번 선포식을 통해 인수 후 통합(PMI) 완료와 새 출발을 알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PT.PAR 출범을



이제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뒷줄 왼쪽 8번째부터)과 윤순구 주인도네시아 대사, 에디 마르토노(Eddy Martono) 팜오일협회 회장 등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PT.PAR CI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통해 팜 사업의 지역과 기능을 동시에 넓히게 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약 1조 3000억원을 투입해 삼푸르나 아그로 경영권을 인수했고 이 과정에서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일대 12만 8000헥타르(ha) 규모의 팜 농장과 종자 전문 자회사, 연구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

PT.PAR은 앞으로 수마트라-칼리만탄 지역 농장 운영과 종자 사업을 담당한다. 기존 파푸아 지역 팜 농장을 운영해온 PT.BIA(2만 6000헥타르)가 생산 기반을

말아왔다면 PT.PAR은 여기에 종자 개발과 대규모 농장 운영 역량을 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제 부문은 GS칼텍스와 공동 설립한 PT.ARC가 맡는다. PT.ARC는 연간 50만톤 규모의 팜유 정제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생산된 팜유를 정제유와 바이오연료 원료 등으로 가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보유한 팜 농장 면적은 총 15만 4000헥타르다. 서울시 면적의 약 2.5배에 해당하

는 규모다. 생산 기반 확대와 종자 사업 편입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팜 사업 영업 이익을 전년보다 2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PT.PAR 출범은 생산 기반 확대와 종자 사업 역량 확보를 통해 식량사업을 한 단계 키우는 계기”라며 “팜 사업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식량·소재 플랫폼으로 사업 기반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박용인 삼성전자 사장 “시스템LSI 사업, 연간 적자 불가피”

1분기 역대최고 수준 매출 달성 “SoC 사업 등 수익성 개선 최선”



시스템칩(SoC) 등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 부문인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의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2조~3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흑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사장은 “대형 고객사 센서 수주, 맞춤형(커스텀) SoC 사업 추진 등 신규 포트폴리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고,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인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시스템LSI사업부장(사장·사진)이 올해 시스템LSI 사업의 연간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박 사장은 18일 열린 시스템LSI 사업부 경영현황 설명회에서 임직원들에게 사업 현황과 향후 전략을 설명하며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달성했지만 시장 변화와 수요 위축으로 연간 기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스템LSI 사업부는 이미지센서와 시

이어 “경영진은 미래 성장 기반 확보와 함께 사업 체질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며 “SoC 사업은 단기간 내 흑자전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사업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사장은 “엑시노스 2700은 플래그십 모델 탑재를 목표로 차질 없이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비지상 네트워크(NTN)를 포함한 차세대 무선통신기술(CP)이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앞서 시스템LSI 사업부는 엑시노스 2600을 갤럭시 S26 시리즈에 공급하며 성능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후속 제품인 엑시노스 2700은 내년 초 출시가 예상되는 갤럭시 S27 시리즈 탑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스템LSI 사업부는 향후 모바일 중심의 이미지센서 사업을 넘어 다양한 응용처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DDI·PMIC 등 시스템반도체 사업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사장은 “구조적 문제는 경영진이 해결하고 구성원들이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단순 재무적자가 아닌 전략적 성과의 가치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공동부스 운영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8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넥스트라이즈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관을 21개 협력사와 공동 부스로 구성했다.

주요 전시 품목은 K9 자주포 조종수 계기판, 차량 주변 360도 영상을 제공하는 영상장치, 천무 유도탄의 항재밍 위성항법 장치, 발사대용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됐다.

오픈이노베이션관도 운영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무기, 유도무기, 항공 분야 등 총 12개 과제에 참여할 중소 협력사와 벤처·스타트업들을 현장에서 발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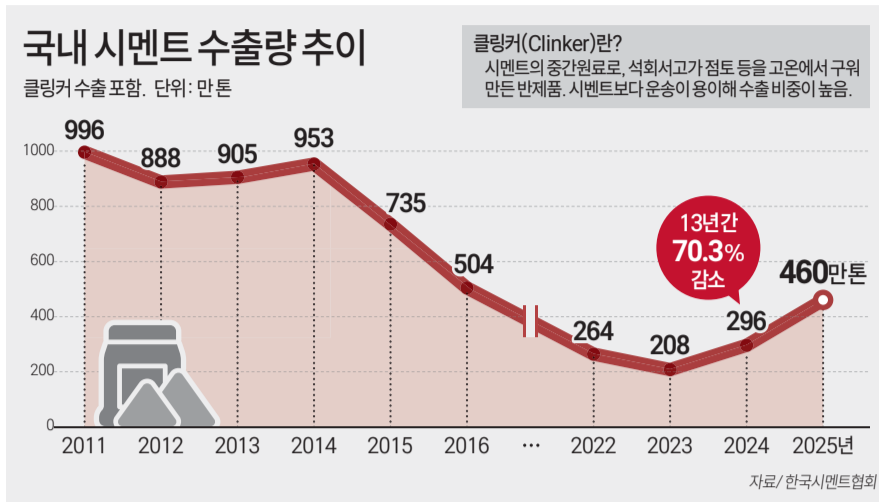
/원관희 기자

# 시멘트, 年 1000만t 수출 반토막... 내수 침체에 갇혔다

2011년 수출 996만t 정점 찍어 2023년 208만t까지 주저앉아 작년 반짝 반등에도 단가 하락 내수 3760만t... 34년 만에 최저 가동률 크게 떨어지고 판로 위축 고환율·원자재값 상승 '빨간불'

한때 연간 1000만톤(t)에 육박했던 시멘트 수출이 10여년새 전성기의 절반 가량으로 주저앉은 등 '시멘트=내수 산업'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시멘트산업이 가뜰이나 계속되는 건설 부동산 시장 침체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까지 부진해지며 나라 안팎으로 돌고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시멘트 내수 판매량은 3760만t까지 떨어지며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8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시멘트 총 수출 물량은 996만t으로 1000만t에 근접했다. 이는 클링커(548만t)와 시멘트(448만t)를 더한 수치다. 알갱이 형태의 '클링커(Clinker)'는 시멘트 반



제품으로, 석고 등을 넣고 분쇄하면 시멘트 완제품이 된다. 클링커와 시멘트를 합한 시멘트 총 수출은 2014년에도 953만t을 기록한 바 있다. 시멘트 수출은 이후 2015년 735만t, 2016년 504만t으로 점점 줄더니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엔 264만t→208만t→296만t을 각각 기록하며 200만t대까지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460만t으로 반짝 늘었다.

수출은 주로 해안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쌍용C&E(동해), 삼표시멘트(삼척), 한라시멘트(옥계)가 주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쌍용C&E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 쌍용C&E는 2024년 한해 업계 전체 수출 물량의 79%인 234만3427t의 시멘트를 해외에 팔았다. 중국, 필리핀, 미국, 칠레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 작년에도 쌍용C&E는 전체 수출의 69%를 담당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멘트 해외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최근에는 수출 단가까지 하락하면서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쌍용C&E의 경우 2020년 당시 t당 4만5220원이던 수출 단가가 2023년 당시 6만3121원까지 상승했지만 2024년과 지난해에는 4만4483원, 4만2671원으로 각각 하락했다. 지난해엔 전년보다 수출 물량이 다소 늘었지만 단가가 하락하며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는 내수 판매가 최우선이다. 비싼 운송비까지 쥐가며 해외에 먼저 팔이 유가 많지 않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수출은 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수 수요가 많으면 해외에 팔 물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수가 위축되면 공장을 놀리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해 수출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돈이 남기만하면 수출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IMF 직전 6000만t을 넘어섰던 시멘트 내수는 등락을 거듭하다 2018년까지 5000만t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시장 침체로 4000만t대까지 내려서더니 지난해엔

3000만t대에 진입하며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다. 올해도 시멘트는 빨간불이다.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시멘트는 그동안 미국 서부, 러시아 극동, 중국 연안,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됐다.

내수는 그렇다쳐도 수출을 위한 운송비가 갈수록 늘어나고 중국산 저가 시멘트의 공세로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며 수출 판로까지 막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공장 가동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2024년 당시 클링커 기준으로 82.3%에 달했던 쌍용C&E의 가동률은 올해 1분기에는 69.8%까지 하락했다. 삼표시멘트의 경우 가동률은 클링커가 65.9%, 시멘트가 49.7%에 그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생산능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 원달러 환율 1500원대 고착화로 인한 유연탄, 석회석 등 주요 수입 원자재값 상승 등 시멘트업계는 현재 사면초가, 진퇴양난 상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삼성, AI가전 품은 모듈러 주택시장 진출

공간제작소와 단독주택 시장 공략 공장 제작 단계부터 가전·IoT 등록 설치·연결 부담 줄인 주거 경험 제공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가전과 스마트홈 플랫폼을 결합한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며 미래 주거 시장 공략에 나선다. 가전이 설치된 이후 연결되는 수준을 넘어 주택 설계·제작 단계부터 AI 홈 환경을 구축해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 기업인 공간제작소와 협력해 '삼성 AI 모듈러 홈'을 출시하며 단독주택형 모듈러 건축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18일 밝혔다.

공간제작소는 모듈러 주택 전문 기업으로 기존의 현장 중심 건축 방식과 달리 AI 기반 설계와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통

해 주택의 8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 및 설치를 진행한다.

이런 모듈러 주택은 공사기간이 비교적 짧고 균일한 건축 품질을 보장하며 건축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공사 기간 단축 수요가 커지면서 모듈러 건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에서 주요 공정을 진행하는 모듈러 주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어 건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와 공간제작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양사가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삼성 AI 모듈러 홈' 쇼룸을 이달 오픈했다. 쇼룸은 공간제작소의 모듈러 목조주택에 삼성전자의 AI 가전과 스마트싱스 기반의

AI 홈 솔루션을 적용해 실제 주거 공간처럼 꾸며졌으며 330㎡(제곱미터), 66㎡ 등 총 2개소로 구성됐다. 실제 구매 시에는 고객이 라이프스타일이나 부지 규모에 맞춰 33㎡, 99㎡, 132㎡ 등 다양한 주택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 AI 모듈러 홈'은 모듈러 주택의 장점인 건축 편의성과 균일한 품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장 제작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가전제품과 솔루션이 설치·등록된 채 배송되어 편리하다.

공간의 형태나 목적에 따라 에어컨, 히트펌프 보일러, 냉장고, TV 등 AI 가전과 스마트 조명, 홈캠, 도어캠 등 20여종의 스마트싱스 연동 기기를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입주 시 가전을 구입하고 홈 IoT 네트워크를 등록하는 복잡한 과정 없이 입주하는 즉시 AI 가전과 솔루션을 사



삼성전자가 공간제작소와 함께 '삼성 AI 모듈러 홈' 솔루션 쇼룸을 오픈했다. /삼성전자

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품 구매 및 설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고 장소의 제한 없이 어디서나 편리한 AI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양혜순 부사장은 "공간제작소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의 기획·제작 단계부터 AI 가전과 솔루션이 탑재된 모듈러 주택형 AI 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되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한솔테크닉스 월테크놀로지 인수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분 83.37% 확보해 자회사 편입

한솔그룹 계열 전기·전자소재 전문 기업인 한솔테크닉스가 반도체 검사 부품 전문기업 월테크놀로지 인수를 끝냈다.

18일 한솔그룹에 따르면 한솔테크닉스는 월테크놀로지 주식 611만 544주(1772억원)를 취득해 지분 83.37%를 확보하고 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월테크놀로지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프로브카드(Probe Card)'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업이다. 특히 스마트폰 메인칩(AP)과 이미지센서(CIS)용 프로브카드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외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타이어업계, EU관세 예고에 유럽 공급망 확대

넥센, 체코공장 자동화 창고 증설 한국타이어, 헝가리 생산 강화

국내 타이어 업체들이 중국 생산량을 줄이고 유럽 현지 생산 확대에 집중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 연합(EU)이 중국에서 생산된 타이어에 최대 52%에 이르는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체코 자테츠 소재 유럽공장 내 완제품 자동화 창고를 증설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유럽 현지 생산량 증가에 맞춰 물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신규 창고는 연면적 7104㎡, 높이 51미터(m) 규모로 이번 증설을 통해 타이어 보관 능력은 기존 약 53만 개에서 약 83만 개로 약 57% 늘었다.

넥센타이어는 2019년 유럽공장 1단계

가동을 시작한 이후 2024년 2공장 증설하고, 생산량을 지속 확대해 현재 연간 약 1000만 개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생산 물량과 유럽 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0월 완제품 창고 증설을 추진했다.

신규 창고는 완전 자동화된 입고 시스템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제품 추적 시스템 등 첨단 물류 기술을 적용해 생산부터 보관, 출하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한국타이어는 유럽 현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2007년부터 헝가리 공장을 가동해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대규모 증설을 통해 트럭과 버스 타이어 생산 라인까지 추가하며 약 1800만본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양성운 기자 ysw@

## K-스타트업, 파리 비바테크서 기술력 알려

중기부, 통합관 열고 39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프랑스 현지에서 K-스타트업들의 유럽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 17일(현지 시간)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비바테크놀로지 2026'에서 'K-스타트업 & K-이노베이션 통합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바테크놀로지는 전 세계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투자자 등이 미래 기술을 공개하는 유럽의 대표 스타트업·테크 전시회로, 올해 18만명의 참가객과 스타트업 약 1만4000개사가 참여한다. 개최 10주년을 맞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AI), 생산성의 재정, 기술주권·윤리를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의 글로벌 흐름을 살펴볼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2023년 한국이 비바테크놀로지의 주빈국 격인 '올해의 국가'에 선

정된 이후 매년 K-스타트업 통합관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와 협업해 스타트업 39개사의 유럽시장 진출을 돕는다. 주식회사 옵티믹스, 스티그마, 그리네타, 나인와트 등이 참가한다.

또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랑스 창업 지원기관 방문부터 현지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의 네트워킹, 투자 설명회(IR)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 목승환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기에 우리 스타트업들의 혁신 기술을 비바테크놀로지에서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참여기업들이 이번 전시회를 발판으로 유럽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포스코DX 직원 주도 AX혁신 속도 AI 에이전트 직접 개발

포스코DX가 직원 주도의 AX(AI 전환)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임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기획·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며 전사적인 AI 체질 개선에 나섰다. 포스코DX는 업무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AX 해커톤 2026'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스코DX는 지난해 'AI 네이티브 컴퍼니' 전환을 선언한 이후 전 직원이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업무에 활용하고, 필요한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1인 AI 에이전트 시대'로 규정하고 전사 차원의 AX 혁신을 추진 중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G-ROUND ART FAIR 2026

9.17

9.20

성도컨벤시아  
101시어

Beyond Art

예술을 넘어서... 후미리즘이 되다

글로벌 그라운드 아트페어 2026

| 주최 세계일보 | 주관 GAF조직위원회 | 후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문의 : 02-6743-3303

# “韓, AI 경쟁력 갖춘 시장… AI 기본법으로 제도적 틀 마련”

## 앤스로픽, 서울에 공식 사무소

기자간담회에서 韓 사업전략 발표  
기술정책·운영 아우르는 조직으로  
기업고객·개발자 커뮤니티 지원

초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앤스로픽이 한국에 공식 사무소를 낸다. 높은 개발자 수요와 반도체, 풀스택 AI 경쟁력을 갖춘 한국을 전략 시장으로 삼고, 국내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AI 생태계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앤스로픽은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업, 연구기관, 개발자 커뮤니티 등 한국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크리스 차우리 앤스로픽 인터내셔널 총괄과 최기영 앤스로픽 한국 대표가 참석했다.

크리스 차우리 앤스로픽 인터내셔널 총괄은 “한국은 AI 기본법을 통해 AI의 개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크리스 차우리 앤스로픽 인터내셔널 총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발과 활용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공동된 철학이 우리가 한국에 진출한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앤스로픽은 한국을 정책, 개발자 수요, 반도체 등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3대 AI 강



기자간담회에서 최기영 앤스로픽 한국 대표가 국내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국 도약을 목표로 관련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자들의 클로드에 대한 관심도 높다. 또 국내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와 AI 인프라를 구성하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풀스택 역량을 갖춘 것에 주목했다.

국내 사업 전략의 핵심은 기업 고객·개발자 커뮤니티 지원이다. 최기영 대표는

“한국은 기술 업무와 창의적 업무에서 클로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시장”이라며 “클로드를 시험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에 깊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스로픽 경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16개국 가운데 1인당 사용량은 12위를 차지했다.

앤스로픽은 서울 오피스를 영업 거점인 아닌 기술·정책·운영을 아우르는 전담 조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기업의 AI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과 기술 엔지니어링 인력을 확충하고, 고객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인력과 운영·정책 담당자도 배치한다.

또 클로드와 클로드 코드의 한국어 성능을 개선하고 한국 시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사 엔지니어링·리서치 조직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국내 규정과 기업의 데이터 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국 내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레지던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AI 안보 프로젝트 ‘프로젝트 글래스wing’에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다. 그러나 앤스로픽 측은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에 따른 접근 차단 여부, 추가 참여 기업 및 공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달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해킹에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문제 삼은 ‘탈옥’에 대해 크리스 차우리 앤스로픽 인터내셔널 총괄은 “탈옥 문제는 최근 6개월 내 출시된 다른 모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한적 사례”라며 “수출통제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난 12일(미국 동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앤스로픽의 최첨단 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탈5’에 수출통제 조치를 내렸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 e스포츠, 콘텐츠 산업 도약… 2030년 시장규모 9조 기대

올해 규모 약 7조8000억 전망  
중계권, 광고 등 수익모델 다변화  
LoL 누적상금 1위 페이커 이상혁  
상위 10명 중 8명 한국선수 차지



T1 이상혁(페이커)이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치지직 톨파크에서 열린 2026 LoL 챔피언스 코리아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오는 2030년 시장 규모가 9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 확대와 함께 프로게이머의 영향력도 커지는 가운데, 리그오브레전드(LoL) 누적 상금 순위에서는 T1 소속 페이커 이상혁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며 한국 e스포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8일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는 51억3000만달러(약 7조8000억원)로 전망

됐다. 2017년 11억8000만달러와 비교하면 9년 만에 4배 이상 성장한 규모다.

스태티스타는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이 2027년 54억달러, 2028년 56억7000만달러를 거쳐 2030년에는 62억달러(약 9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게임 산업이 단순 소비를 넘어 중계권, 광고, 콘텐츠, 스폰서십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확보하면서 e스포츠 역시 독립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게임사들이 국제대회 운영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들도 e스포츠 중계와 콘텐츠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시장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선수 개인 성과를 보여주는 누적 상금 순위에서는 종목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2월 기준 글로벌 e스포츠 선수 누적 상금 1위는 도타2 선수 노테일 요한 스타인으로 집계됐다. 누적 상금은 718만달러에 달했다. 이어 제락스 예세 바이 나카가 649만달러, 미포슈가 아로슬라프 나이테노프가 623만달러를 기록했다.

상위권 대부분은 도타2 선수들이 차지했다. 도타2는 국제대회인 ‘디 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수백억원 규모 상금이 책정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다른 종목 대비 누적 상금 규모가 큰 편이다. 실제 상위 10명 모두 530만달러 이상 누적 상금을 기록했다.

반면 LoL은 상대적으로 리그 중심 구조가 강하다. 선수들의 수익 역시 대회 상금 외에 연봉과 인센티브, 광고, 후원 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LoL 누적 상금 순위에서는 페이커 이상혁이 독보적인 1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이상혁의 누적 상금은 192만2080달러(약 29억원)로 집계됐다. 2위인 롤러 박재혁의 103만5770달러와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운 차이다.

이상혁은 2013년 SK텔레콤 T1에서 데뷔한 이후 10년 넘게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며 LoL e스포츠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의 팬덤은 물론 e스포츠 산업 전반에서도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3위는 듀크 이호성, 4위는 중국선수 재 카리브 위윈보가 차지했다. 이어 뱁 배준식과 울프 이재완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상위 10명 가운데 8명이 한국 선수로 집계됐다. LoL e스포츠 역사에서 LCK와 한국 선수들이 쌓아온 국제대회 성과가 수치로도 확인된 셈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KT, 부울경 기업에 AX 전략·사례 공유

부산 벡스코서 ‘부산 클라우드 데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고객니즈 지원

KT가 지역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I)을 위한 현장형 전략을 공개한다. KT는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 클라우드 데이 2026’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KT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BIPA)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소재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AX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과 사례를 공유한다. AI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효율화, 고객 경험 혁신, 현장 안전 관리 등 노하우를 선보인다.

부울경 지역은 해양·항만·물류, 조선·자동차·중공업 등 주요 산업이 밀집해 AI 업무 전환이 활발한 지역이다. 해양·항만 현장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운영관리와 산업 안전 중심의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 조선·중공업은 생산 현장에서 IT 인프라를 활용한 AX가 진행중이다.

KT는 송정글로벌허브센터와 김해글로벌

데이터센터, PPP 대구센터 등 주요 지역에 해저 케이블 육양국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다수의 해저 케이블을 통해 글로벌 연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해저 케이블은 생성형 AI 서비스, 온라인 협업 도구, 스트리밍 등 실시간 트래픽을 수용하고 글로벌 주요 허브와 직접 연결된다.

송정글로벌허브센터는 최대 육양국인 KT 부산국제통신센터와 인접해 있다. 부산에서 별도 경우 없이 해외 데이터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국제 트래픽 경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글로벌 AI·데이터 전문기업과 파트너십도 구축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데이터브릭스 등과 산업별 특화 AX 솔루션을 협력하고 각 지역별 B2B 전문 컨설팅 조직도 보유하고 있다.

KT는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플렉스’를 통해 컨설팅부터 보안 강화까지 고객의 니즈를 통합 지원한다. /조민선 기자

## SKT, ‘A.X K2’ 연계 독파모 연구 세미나

개발자, 학생 등 200여명 참석

SK텔레콤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17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사옥에서 개발자, 학생, SK그룹 사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로 진행됐다. SK텔레콤 정예팀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를 수행하며 연구해 온 AI 기술의 흐름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AI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하나의 산업 시스템으로 진화하는가라는 화두를 종합적으로 풀어내는 자리다. 특히 SK텔레콤 정예팀이 어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델을 개발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서인석 교수가 ‘수학 인공지능: 그

림싸함과 올바름의 차이’를 주제로 발표했다.

세미나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앞서 1차 세미나에서는 서인석 교수가 수학적 관점에서 AI의 원리를 설명했다. 유영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의 인공지능 추론 방법과 윤성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AI 모델 생태계 세미나가 차례로 열린다.

SK텔레콤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 A.X K2를 통한 사례 학습도 진행한다. AI가 추론 역량 습득하는 방법, 멀티모달 역량 기반 등을 참여 교수의 발표를 통해 풀어낸다.

실시간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온라인 중계 시청을 원하는 경우 비즈니스 소셜 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SKT 정예팀은 ‘A.X K2’가 에이전트 기능을 비롯해 모델 활용과 산업 확장에 적합한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컨소시엄 차원의 산학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 kt HCN 케이블TV 운영 넘어 빌딩 IT설비 관리까지

kt HCN이 그동안 쌓은 방송·통신 인프라 운영 역량을 토대로 기업간거래(B2B) 시장 확장에 나선다.

kt HCN은 대형 백화점과 같은 유통시설을 비롯한 60여개 건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kt HCN이 넓히고 있는 분야는 케이블 TV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기반 방송·통신 인프라를 직접 운영한 경험과 최신 전문 장비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kt HCN은 현장 점검을 통해 건물별 설비 구조와 운영 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 맞는 관리 방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재 설비 상태를 파악해 장애 우려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모바일 기반 점검 솔루션을 활용해 현장에서 점검 내용을 즉시 확인 가능하다. /조민선 기자

# 연금저축 적립금 200조 육박... '펀드·ETF' 중심 머니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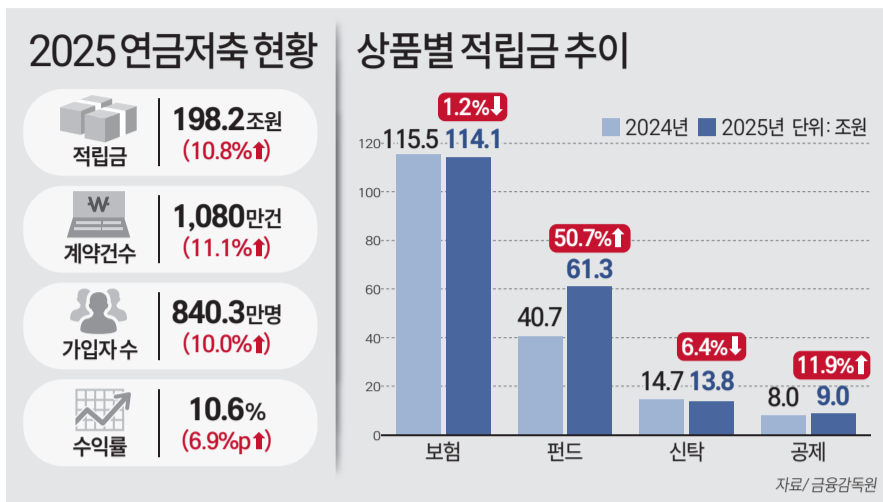
1년새 적립금·가입자 수 10%↑  
펀드 등 30%대 높은 수익률 영향  
원금 비보장... 손실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증시 강세를 타고 연금저축 시장이 2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앞세운 연금저축펀드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노후자금에 보험에서 펀드·ETF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조2000억원으로 전년(178조9000억원) 대비 19조3000억원(10.8%) 증가했다. 증가율 역시 2023년 4.9%, 2024년 6.5%, 2025년 10.8%로 확대되며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다. 가입자 수도 840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76만1000명(10.0%) 늘었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61.3조... 50% 이상 증가

연금저축 시장 확대를 이끈 것은 연금



저축펀드였다.

지난해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61조3000억원으로 전년(40조7000억원) 대비 20조6000억원 증가하며 50.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7.6%, 2024년 22.7%, 지난해 30.9%로 가파르게 확대됐다.

반면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은 11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며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연금저축신

탁 역시 13조8000억원으로 6.4% 줄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두고 "적립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판매회사별로는 보험회사가 114조3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57.7%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 적립금도 55조4000억원으로 27.9%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금융투자회사 가운데서는 미래에셋증권이 1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9조

8000억원), 한국투자증권(7조2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연금저축 납입액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연간 납입액은 13조4886억원으로 전년보다 18.1% 늘었다. 이 가운데 펀드 납입액은 8조8482억원으로 49.3% 증가하며 전체 납입액의 65.6%를 차지했다. 보험·신탁·공제상품 납입액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연금저축상품 연간 수익률 10.6%... 펀드·ETF 29.3%

투자자들의 선택이 펀드로 쏠린 배경에는 수익률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10.6%를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펀드·ETF 수익률이 29.3%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펀드는 31.3%, ETF는 27.4%를 기록했다. 반면 보험은 0.8%, 신탁은 4.0%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펀드와 ETF 수익률이 크게 상승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신규 가입에서도 펀드 선호 현상은 뚜렷했다. 지난해 신규 연금저축 계약은 144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51.9% 증가

했는데, 이 가운데 펀드 계약이 134만9800건으로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펀드 신규 계약은 전년보다 60.1% 증가한 반면 보험과 공제상품 신규 계약은 오히려 감소했다.

증권사 가운데 신규 계약 유치 실적은 카카오에이증권이 31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증권 31만건, 미래에셋증권 27만6000건, 한국투자증권 14만4000건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신규 계약이 금융투자회사로 집중되며 증권사 간 연금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높은 수익률만을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이 있지만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투자성향과 재무상황, 상품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 “은퇴자산 성패, 높은 수익보다 손실 겪는 시점에 달려”

### NH아문디자산운용 간담회

올스프링과 TDF 운영전략 소개  
AI 빅사이클 대응... 韓 주식 비중 확대

“은퇴자산의 성패는 얼마나 높은 수익을 냈느냐보다 언제 손실을 겪었느냐에 달려 있다.”

프랭크 쿡 올스프링 글로벌솔루션부총괄은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NH아문디자산운용 '하나로 TDF 투자전략 간담회'에서 “은퇴 시점 부근의 큰 손실은 만회할 기간이 부족해 퇴직자산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이날 글로벌 운용 파트너 올스프링과 함께 타깃데이트 펀드(TDF)의 운용 전략을 소개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점차 줄이고 채권 등 안정자산 비중을 높이는 생애주기형 펀드다. 이 자산배분 경로를 글라이드패스를



프랭크 쿡(Frank Cooke) 올스프링 글로벌솔루션부총괄이 18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하나로 TDF 투자전략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NH아문디자산운용

고 한다.

쿡 총괄은 같은 30% 손실이라도 은퇴 2년 전 발생한 경우와 은퇴 8년 후 발생한 경우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은퇴 직전에는 자산 규모가 크고 회복할 시간이 짧아 손실 충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는 “글라이드패스의 역할은 단순히

수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방 위험을 관리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올스프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글라이드패스는 정적 6대40 혼합형 포트폴리오 대비 평균 최대 낙폭을 12% 줄이고 은퇴 시점 자산을 13.2%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마티아스 사이버 올스프링 멀티에셋부문 총괄은 한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다. 그는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로봇·전력설비·원자력, 재산업화 흐름에 따른 조선·방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을 주요 기회로 꼽았다.

다만 최근 코스피 상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종목에 집중된 점은 위험 요인으로 봤다. 사이버 총괄은 “한국 증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특정 종목 의존도도 높다”며 “장기 은퇴자산은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환 NH아문디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부총괄은 하나로 적격 TDF의 성과배경으로 적극적인 전술적 자산배분(T

AA)을 들었다. 올해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3월에는 주식 비중을 줄였고, 이후 시장 반등 국면에서는 다시 비중을 확대했다. 채권은 고금리 환경을 감안해 비중 축소를 유지했다.

하나로 적격 TDF는 5월31일 운용펀드 기준 최근 5년 수익률에서 2025형이 39.52%로 유형 내 1위를 기록했다. 2030형은 56.94%, 2035형은 65.83%, 2040형은 72.54%로 각각 2위에 올랐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향후 AI 빅사이클에 대응해 한국 주식 편입 한도를 최대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I 관련 투자도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CPU·GPU·AI 서비스 등으로 넓힌다.

김 팀장은 “하나로 TDF는 단순히 수익률 경쟁이 아니라 장기 은퇴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올스프링의 글로벌 운용 역량과 능동적 자산 배분을 바탕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국민권익위-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상속 금융재산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이 예금 등 금융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별로 상속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했고, 절차가 복잡해 상속재산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양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 및 금융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상속인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통합지급을 신청하면 각 금융회사가 관련 서류를 공유해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상속인의 지정 계좌로 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상속인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 등 상속 관련 서류를 한 차례만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 간 디지털 방식의 서류 공유 체계를 구축해 중복 제출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금융기관별 상속 서류와 신청 양식도 표준화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권익위는 내년 초 상속예금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은행권 소액 예금을 중심으로 운영한 뒤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 금감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주의' 발령

변동성 급격히 확대... 손실 가능성 커져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개인 투자자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 위험 경고에 나섰다. 상장 12거래일 만에 관련 상품 시가총액이 두 배 이상 불어났지만 변동성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18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경보는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금감원이 발령하는

제도로 주의·경고·위험 순으로 구분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상품과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일명 곱버스)도 함께 운용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6종을 동시에 상장했다. 상장 당시 4조5000억원 수준이던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기준 9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는 관련 상품을 8조2000억원 순매수하며 자금 유입을 주도했다.

단기 매매도 활발했다. 단일종목 레버

리지·인버스 상품의 하루 평균 매매회전은 122.5%로 집계됐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 주식의 평균 매매회전율(1% 미만)은 물론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평균(30.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특히 하락장에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연속 하락했을 때 최대 낙폭은 18.0%였지만, 같은 기간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최대 하락폭은 35.9%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최대 추가 하락률은 19.1%였으나 관련 레버리지 상품은 최대 38.0% 하락했다. 일부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가

격 외곡 현상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개장 직후와 장 마감 직전 시장가 주문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당 시간대에는 LP 호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제 순자산가치(NAV)와 거래가격 간 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일반 ETF와 달리 분산투자 효과가 없고 특정 기업의 추가 변동에 직접 노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변동성이 매우 큰 고위험 상품”이라며 “투자 전 상품 구조와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투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질 경우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 ‘발전 5사’ 단일법인 통합 권고 탈석탄 전환 대응 구조개편 시동

기후부, 한전아트센터서 중간보고회  
삼일회계 “현 체제론 NDC 한계”  
학계·노동계도 통합 필요성 공감  
정부, 7월 최종 구조조정안 수립

정부는 전력공기업 구조개편 밑그림이 공개됐다. 에너지 전환기와 탈석탄 시대를 맞아 현재의 발전 5사 분할 체제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진단과 함께, 이들을 단일 법인으로 완전 통합하는 방안이 공식 권고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전문가와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삼일회계 법인을 통해 추진해 온 과제다. 연구를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현행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체제가 경쟁 유도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공공 내부의 ‘각자생존식’ 중복·과잉 투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1사 완전 통합’, ‘권역별 2~3사 통합’, ‘지주회사 구조’ 등을 비교 검토해 최종 ‘1사 완전 통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분산된 재무구조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무탄소 전원 전환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다. 500MW 규모의 해상 풍력 사업(총사업비 약 3조 7500억 원)에 개별 발전사가 단독 참여할 경우 부채비율이 평균 48% 급증한다. 이로 인해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국내 전체 용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며, 자체 개발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중심의 소극적 의무 이행에 머물러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단 공동취재사진

실정이다. 발전 공공성 약화도 데이터로 증명됐다. 강세훈 한국서부발전 기획본부장은 “한전 분사 당시 64%에 달했던 발전사의 국내 설비 비중이 현재 33%까지 떨어졌다”며 “지난해 한전 전력 구입량 중 발전 5사 비중은 31%에 그친 반면, 민간은 37%를 차지해 위상이 크게 축소됐다”고 했다. 조영상 연세대 교수 역시 “최근 전력 도매 가격(SMP) 결정 시간대를 보면 민간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통합 공기업의 시장 독점 및 가격 결정권 왜곡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 단일 법인 체제만이 고용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204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40기가 대거 폐쇄되는 상황에서, 공기업 간 인력이동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현 구조로는 대규모 실업을 막을 수 없고, 단일 법인 내에서만 규제 없이 직무 전환과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노조측도 단일 체제 통합을 적극 지지했다. 남대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발전 노동자들에게는 ‘20년의 기다림’이 실현되는 순간”이라며 “통합 법인의 자본력을 모아 민간이 90% 이상 독점한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

너지 시장에 공공이 본격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화학적 통합을 위한 세부 로드맵과 국민 관점의 명분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시영 단국대 교수는 “현재 안은 공기업 입장의 서술에 치우쳐 있다”며 “국민 편의’와 ‘안전’이라는 대원칙을 명확히 해야 추후 발생할 노노·노정 갈등을 풀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통합 법인이 사업 양수도를 받는 방식인지 신규 법인 설립인지, 민간과의 기존 연료 도입 계약 승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디테일한 시간 계획 타임테이블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창환 중앙대 교수는 과거 LH 등 거대 공기업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물리적 통합 후에도 내부 보수 체제나 조직 문화 차이로 수년간 별개 기관처럼 운영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실질적인 화학적 결합을 위한 우선순위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중간보고 내용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학계·노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통합 방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한미, 3500억달러 대미 전략투자 시동

한미전략투자공사 세종서 출범식  
에너지·조선 등 전략산업 협력  
美 제조업 재편 속 韓기업 지원

한·미 양국 간 경제·안보 동맹을 첨단 전략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대미 전략적 투자를 전담할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KUIC, Korea-U.S. Strategic Investment Corporation)’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조선 등 양국이 합의한 핵심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협력이 한층 체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위치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옥에서 공사 창립기념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초대 사장 등 한·미 양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사 출범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투자 MOU’의 후속 조치다.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법)이 1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간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위원회를 발족해 정관 마련, 조직 구성, 직원 채용 등 공사 설립 작업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공사는 미국 제조업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담해 양국 간 전략적 자산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맡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기념사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를 넘어 첨단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며 한 차원 더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거점으로 함께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를 향해 “단순한 자본투자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산업 생태계를 잇는 가교가 되어달라”고 주문하며,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초대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양국 간 투자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에너지·조선 등 합의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김 AMCHAM 회장 역시 “공사가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적인 투자와 성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암참 역시 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출범이 양국 경제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공사의 기반을 이끌 초대 이사진 인선도 함께 발표됐다. 경영기획본부장에는 강중석 전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공정책기획단 부단장(전 국회 경제산업조사실장)이, 전략투자본부장에는 김경한 전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세종시에서 열린 ‘한미전략투자공사 창립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박종원 한미투자전략공사 사장, 구부총리, 제임스 김 암참 회장,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박영일 한국투자공사 사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뉴시스

# 영덕에 대형원전, 기장엔 첫 SMR 들어선다

(소형모듈원자로)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 후보지 확정  
주민 여론 앞선 두 지역이 최종 낙점  
한수원 “지역 상생 최우선 고려”

과거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선정됐다가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경북 영덕군이 10년 만에 대형 원전 유치에 성공했다. 부산 기장군에는 대한민국 미래 원전 생태계를 이끌 첫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들어선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위원장 손양훈, 이하 평가위원회)는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부지 평가 결과, 대형 원전 2기 후보부지로 경북 영덕군을, SMR 1기 후보부지로 부산 기장군을 최종 선정했다.

대형원전 부지 선정 공모에는 경북 영덕군, 울산 울주군 2개 지역이, SMR 부지 공모에는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 2개 지역이 신청해 경합을 벌였다. 평가

위원회가 부지·환경 기초조사와 현장조사,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부지적정성·환경성·건설적합성·주민수용성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한 결과, 승부처는 ‘주민 여론’이었다.

대형원전 부문에서는 영덕군이 종합점수 91.01점을 받아 울산 울주군(82.63점)을 큰 점수 차로 제쳤다. 영덕군은 주민수용성 중 주민여론조사(5km 이내/박)와 부지적정성·환경성 분야 등에서 울주군을 압도했다. 한때 원전 지정 구역이 해제되는 등 진통을 겪었던 영덕군으로서는 이번 유치 성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맞붙은 SMR 부문에서는 기장군이 87.11점을 획득해 경주시(84.56점)를 따돌렸다. 기장군은 건설적합성과 환경성에서 경주시에 뒤졌으나, 부지적정성, 주민수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내 첫 SMR 건설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이번 신규원전 부지선정은 지난해 2

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이후 치밀하고 독립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4월 정책·인문, 환경, 원자력, 지질·지진 등 전문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후 모든 기준 수립과 심사는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이후 올해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공모를 시작했고, 유치 공모 마감 이후 평가위원회는 신청부지에 대한 부지·환경 기초조사(4~5월), 현장실사(5월), 주민 여론조사(6월)를 실시하는 등 약 5개월간 정밀 검증을 거쳤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위원회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소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후보지 선정 이후 갈등 관리를 한수원에 주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부산항만공사, 입주·수급업체 안전 교육

신항 배후단지 안전협의회 개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연계 실시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부산항만공사는 18일 부산항 신항 늪해랑쉼터 안전교육장에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및 수급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와 공동으로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도 연계해 실시했다.

이번 안전협의회는 배후단지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입주업체와 수급업체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회에 이어 진행된 법정교육에는 배후단

지 내 현장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감독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필수 점검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물류창고 및 하역작업에서 유의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이뤄졌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배후단지 입주업체와 수급업체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 아, 오늘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구나. ”

뮤직드라마

# 불편한 편의점 2

## Alw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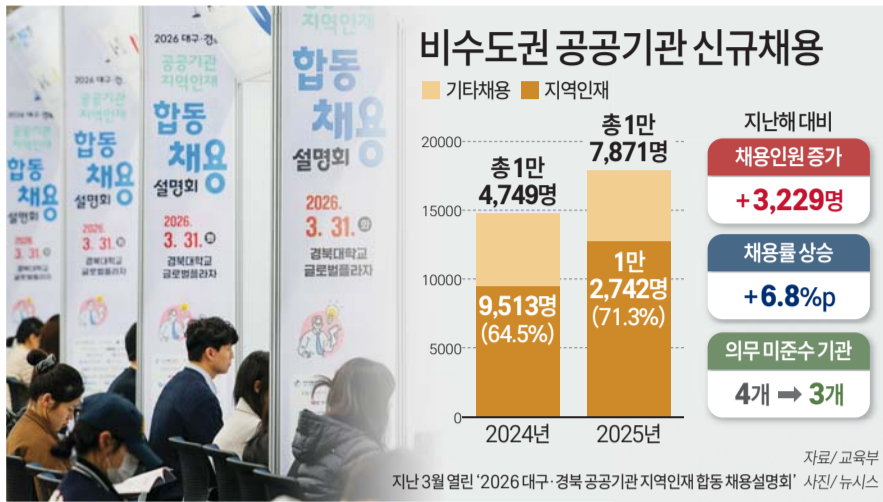
###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승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 문의 02-332-4902

#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채용자 10명 중 7명은 '지역인재'

교육부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현황' 신규채용 규모 총 1만7871명 중 지역균형인재 1만2742명... 71.3% 의무 선발 기준 준수 이행률 98.3% 미준수 기관, 지역인재 풀 부족 사유



지난해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채용자 10명 중 7명은 지역균형인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채용 비율인 35%의 두 배 수준이다. 다만,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이 많은 일부 기관에서는 전문 인력 풀 부족으로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8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부설기관 18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인재가 선호하는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8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교육부가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2025년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는 총 1만787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된 인원은 1만2742명으로, 평균 채용률은 71.3%였다. 이는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비율인 35%보다 36.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년과 비교해도 채용 규모와 지역인재 채용률 모두 증가했다. 2024년에는 182개 기관에서 신규채용 1만4749명 중 9513명

을 지역인재로 선발해 평균 채용률 64.5%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조사 대상 기관이 184개로 늘었고, 신규채용 규모는 3122명 증가했다.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3229명 늘었으며, 평균 채용률은 6.8%포인트 상승했다.

의무 이행률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184개 기관 중 181개 기관이 의무 선발 기준을 준수해 이행률은 98.3%였다. 미준수 기관은 2024년 4곳에서 2025년 3곳으로

줄었다.

2024년 미준수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었다. 2025년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의무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준수 기관들은 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 중심의 채용 구조와 전문 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풀 부족을 사유로 들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분야 연구기관 특성상 대부분의 채용 인력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공학인력이며, 전문역량을 보유한 지방대학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학기술원은 현행 기준상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아 의무비율 달성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 중심의 채용 구조상 전문 역량을 겸비한 지역인재 풀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전체 채용인원 6명 중 5명이 연구직 박사학위 소지자로 의무채용 예외에 해당하고, 나머지 채용인

원이 1명이 그쳐 비율 달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균형인재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역균형인재는 지방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지방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을 뜻한다. 고졸자는 제외되며, 지방대학원 졸업자는 포함된다.

다만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박사학위 요건 제한 채용, 경력 제한 채용, 기관장이 정한 합격 기준 미달, 지원자 중 지역인재 비율이 35%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다만 전문 연구인력 채용 등 일부 현장의 어려움도 있는 만큼 기관별 채용 여건을 살피며 제도가 지역인재의 성장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 초·중·고생, 150개 부스서 진로체험

내달 14일~17일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오는 22일 9시부터 사전접수 시작 1대1 맞춤형 진로상담·특강 등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4일부터 17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박람회 사전 접수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서울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청소년이며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1회차 오전 9시20분~11시20분, 2회차 낮 12시30분~오후 2시30분, 3회차 오후 3시~5시 중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면 된다. 가족 단위 신청은 한 번에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올해로 23주년을 맞은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는 약 4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콘서트, 진로특강, 진로전시 등으로 운영된다.

진로상담 영역에서는 1대1 맞춤형 진로 검사 상담을 비롯해 고입 상담, 대학 진학 상담, 학부모 상담, 고교학점제 상담, 특수학생·학부모 진로 상담 등이 진행된다.

진로체험 영역에서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 기관, 우수기업, 대학 등이 참여해 7개 분야 150개 부스를 운영한다. 분야는 디지털·데이터, 첨단공학, 콘텐츠, 예술·의식주, 생명공학·환경, 공공안전·돌봄·치유, 창업·금융·마케팅 등이다.

진로콘서트는 개막식과 함께 학생동아리 7팀 공연, 진로멘토 12팀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진로특강도 마련된다. 7월 14일 오후 3시30분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을 주제로 강연하고, 15일 오후 3시30분에는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를 쓴 이나준 작가 겸 의사·유튜버가 '어쩌다 보니 직업이 세 개'를 주제로 특강한다.

진로전시 영역에서는 박람회 공모전 입상작인 포스터, 슬로건, 캐릭터 이모티콘, 동영상 등 총 73점이 전시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제3경인 고속화도로, 민자도로 중 가장 우수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경기도가 운영중인 민자도로 3개(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노선에 대한 운영평가 결과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밝혔다.

민자도로 운영평가는 이용자의 안전·편의·편의, 시설물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으며, 시설물·도로 포장·교통·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체계적인 포장관리와 터널 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한 주행 안전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도로 환경을 개선한 점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경. /경기도

전문가들은 민자도로 3개 노선 모두 전반적인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전기차회차발생 대응과 노후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평가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 서울 전통시장·골목상권 120곳서 최대 33% 환급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가계보탬페이백 주간'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120곳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3%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페이백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서울 시내 전통시장·골목상권 120곳에서 '2026 서울시 가계보탬페이백 주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방문객 증가와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남구 역삼동골목형상점가, 강동구 길동복조리시장, 구로구 구로시장, 노원구 공릉동도깨비시장, 마포구 망원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종로구 통인시장, 양천구 신월3동시장골목형상점가 등 25개 자치구 120곳이 참여한다.

시민들은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온누리 상품권. /뉴스시스

지정 환급 장소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카드와 현금 등 결제 수단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해당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3만원이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1만5000원 이상 3만원 미만 구매 시 5000원, 3만원 이상 6만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원 이상 9만

원 미만 구매 시 2만원, 9만원 이상 구매 시 3만원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품목은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환급은 디지털온누리앱 내 '선물'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시장별로 다르며, 환급 장소에서 실시간 발송하거나 행사 시간 종료 후 일괄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산 조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페이백 행사와 함께 시장별 자체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 "파주·양주 축제 등 경기도로 놀러오세요"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 운영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7일부터~20일까지 서울시청 인근 '지역관광안테나숍'에서 열리는 '로컬트립 맛있다' 팝업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2026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을 10회 이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홍보관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축제와 행사 현장을 중심으로 경기도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파주 문화사계 가을 축제(9월 18~20일)', 양주 천일홍 축제(10월 2~4일)', 제주 107회 전국체육대회(10월 16~22일)'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운영 일정과 장소는 경기관광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홍보관은 기존 차량 중심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머물며 휴식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형 홍보관으로 개편됐다. 'DMZ 평화'를 주제로 캠핑 분위기를 집복한 피크닉 라운지를 조성하고, 현장에서는 ▲DMZ 컬러링월드 ▲DMZ 슈팅 챌린지 ▲DMZ 캡슐 뽑기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경기도 관광자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 3일부터~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는 특별 팝업스토어 '경기 여행 고민 자판기'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관람객의 성향에 맞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이색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기관광공사의 주요 관광사업을 보다 흥미롭게 알릴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방문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머물며 경기도 관광의 매력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면사랑, 여름면 라인업 대거 공개... 'B2C·글로벌' 정조준

미디어데이 행사... 경영전략 공유  
여름냉동면 등 이색 신제품 '눈길'  
"국내외 면식시장 선도해 나갈 것"

면·소스 전문기업 면사랑이 여름면 성수기를 앞두고 핵심 제품인 기술과 주요 여름면 라인업을 대거 공개하며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면사랑은 18일 서울 인사동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33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집약된 여름면 주요 포트폴리오를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여름면 세상'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신규 TV CF '면발의 클라이맥스' 공개와 함께 대표 메뉴 시식회 및 경영 전략을 공유하는 Q&A 세션이 진행됐다.

행사는 면사랑의 역사를 시각화한 '헤리티지존'을 비롯해 급속 냉동 기술을 직관적으로 구현한 '여름면 전시존', 라이브 키친에서 맛 조리하는 면 요리 선보인 '다이닝존'으로 구성됐다. 특히 '여름면 전시존'에는 ▲여름냉동면 ▲여름냉면 ▲여름메밀면 ▲여름건면 ▲여름누들헬시 등 테마별 카테고리 마련됐다. 갓 삶아낸 듯한 식감을 구현한 '여름냉동면'과 메밀 함량을 7%부터 100%까지 세분화한 '여름메밀면', 냉각속성 기술과 밀키트 상용 구성을 강조한 '여름냉동면'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메밀과 물로만 만든 100% 메밀면 및 저당 소스를 앞세운 웰빙 라인 '여름누들헬시', 다각수축성 공법이 적용된 '여름건면'도 함께 전시됐다.



강근석 면사랑 연구소장이 18일 열린 면사랑 미디어데이에서 여름면 라인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면사랑

▲여름메밀면 ▲여름건면 ▲여름누들헬시 등 테마별 카테고리 마련됐다. 갓 삶아낸 듯한 식감을 구현한 '여름냉동면'과 메밀 함량을 7%부터 100%까지 세분화한 '여름메밀면', 냉각속성 기술과 밀키트 상용 구성을 강조한 '여름냉동면'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메밀과 물로만 만든 100% 메밀면 및 저당 소스를 앞세운 웰빙 라인 '여름누들헬시', 다각수축성 공법이 적용된 '여름건면'도 함께 전시됐다.



면사랑 대표 여름면 라인업. /뉴스시

면사랑은 이번 미디어데이를 통해 향후 소비자 대상(B2C) 시장 및 글로벌 영도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다.

현재 면사랑은 뛰어난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독보적인 인지도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B2B와 B2C 통합 매출 2000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약 10%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전체 매출 중 B2

C 비중은 아직 10% 미만에 머물러 있어 올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작년보다 더 많은 라인업을 출시하고 건강을 고려한 제품을 지속 선보여 B2C 인지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여름면 캠페인은 기존의 높은 남성 고객 인지도에서 벗어나 '3040 여성'을 핵심 타겟으로 삼았다. 올 하반기까지 신규 고객과의 접점을 대폭 넓혀 제품

을 경험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면사랑 제품은 실패가 없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일반 대중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 제품을 찾기 어려웠던 아쉬움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모바일 채널 중심의 판로를 확장하는 동시에, 올해를 기점으로 롯데마트에 여름 제품 입점을 완료했다. 나아가 코스모,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대형 창고형 할인점 MD들과의 협의를 가결차 진행하며 오프라인 영업망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시장 진출 역시 속도를 낸다. 면사랑은 현재 일본 지사를 통해 현지 시장 채널에 여름면 제품 등을 활발히 판매하고 있으며, 미주 시장 채널 진출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면사랑 관계자는 "소비자 수요에 맞춘 면·소스·고명 제품을 지속 확대하고, 오프라인 및 글로벌 채널을 다각화해 국내외 면식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LG화학, 암 분야 등 AI 기반 신약물질 발굴

영 랩-지니어스 공동연구 계약 체결  
후보물질 발굴 소요기간 단축 기대

LG화학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춘 신약물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전방위적 AI 생태계를 구축한다.

LG화학은 영국 랩 지니어스 테라퓨틱스와 다중항체 항암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및 라이선스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화학은 랩-지니어스에 계약금, 연구비 등을 지급하며, 향후 양사는 합의된 공동연구 결과 평가 기준에 따라 후속 개발 및 라이선스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랩-지니어스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약개발 바이오테크이다. 머신러닝과 고속 대량 실험 기술 및 장비를 결합해 치료 항체를 최적화하는 플랫폼 'EVA'를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LG화학은 AI가 다수 항체를 설계, 제작, 로봇 테스트한 결과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고 해당 데이터를 다음 항체 설계 차수에 반영하는 일련의 반복적 연구 사이클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항체를 보다 빠르게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단백질 구조가 복잡해 표적 검증

부터 선도물질 최적화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항체 신약 후보물질 발굴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공동연구 후보물질의 임상단계(전임상) 진입 시점을 앞당길 전망이다.

LG화학소진인생명과학·연구개발부장은 "랩 지니어스는 자동화된 실험실과 컴퓨팅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후보물질 탐색과 초기 평가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춘 AI 신약개발사"라며 "미중축 의학적 수요가 높은 암 치료 영역에서 기존의 신약 물질보다 효능이 높고 독성은 낮은 신약 후보물질을 빠르게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be236@

## 롯데, 청년인재 키운다... '리프트' 개설

정부 'K-뉴딜 아카데미' 참여

롯데가 정부 주도 인재 양성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해 유통·리테일 및 호텔·서비스 분야 청년 인재 육성에 나선다.

롯데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리프트(LIFT·Lifetime Inspiration For Tomorrow)'를 개설한다고 18일 밝혔다.

리프트는 유통·리테일 과정과 호텔·서비스 과정으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7

는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교육생을 선발한다. 모집 인원은 총 270명이며, 교육은 서울과 부산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유통·리테일 과정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슈퍼, 롯데면세점, 코리아세븐 등이 참여하며, 호텔·서비스 과정은 롯데호텔, 롯데GRS, 롯데JTB 등이 운영을 맡는다.

롯데는 우수 수료자에게 향후 관련 계열사 및 직무 지원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출 회복세... 잔존사업 회생 가능"

상품 공급 정상화 후 매출 48% ↑

홈플러스가 상품 공급 정상화 이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잔존 사업 부문의 회생 가능성을 높다고 18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NS쇼핑으로 매각이 예정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인수사의 자금보증을 바탕으로 상품 공급이 정상화된 이후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할인 행사 기간 익스프레스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약 48% 증가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실적이 회생절차 이후 나타난 부진인 사업 경쟁력 저하보다는 상품 공급 차질에 따른 영향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대형마트와 온라인, 본사 등 잔존 사업 부문 역시 상품 공급이 정상화될 경우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

로 보고 있다.

한편 회사는 잔존 사업 부문 매각과 사업 구조 혁신 등을 포함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잔존 사업 부문 인수합병(M&A) 추진, 사업성 및 유동성 개선을 위한 구조 혁신, 2000억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 대출 확보, 채권 변제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현 기자 seoh@

동국제약 고기능성 스킨케어 공간 운영

동국제약은 제약 기술 기반 '고기능성 스킨케어' 전용 공간을 운영하며 더마뷰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

동국제약이 전국 약 200여개 약국에 뷰티 특화구역 '파마시 뷰티 솔루션'을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공간은 검증된 더마 코스메틱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손쉽게 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동국제약의 '루온셀'을 비롯해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TECA)과 텍스 판테놀을 최적으로 조합한 '데카플러스



'파마시 뷰티 솔루션' /동국제약

포몰라'가 적용된 약국 전용 더마 리피어 브랜드 '마테카파마시아',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브랜드 '판페신', 의료가 등급 압박스타킹 '센시슬림' 등으로 구성된다.

/이청하 기자

## 현대백, '더현대 하이' 평균 객단가 24만원

〈4월 6일~6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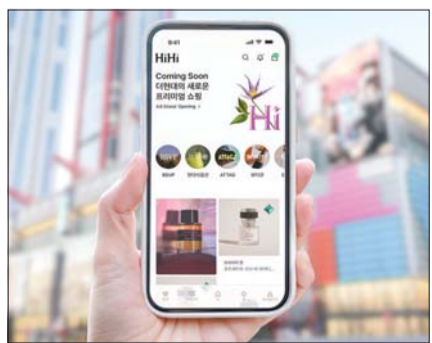
고가상품 판매 호조... 성장세 뚜렷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큐레이션 전문몰 '더현대 하이(Hi)'가 고가상품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3040 고객층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고객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프리미엄 상품 중심의 큐레이션 전략이 젊은 고소득층 고객 유입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3040 고객 비중도 증가했다. 더현대 하이의 3040 고객 비중은 72%로 기존 온라인 채널 대비 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신규 가입 회원의 평균 연령은 40.8



'더현대 하이' 이용 화면. /현대백화점그룹

세로 기존 고객 평균 연령인 52.2세보다 낮았다.

/김서현 기자

## 동아제약, 의약품 모바일 간편검색 서비스

동아제약이 주요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동아제약은 스마트폰 바코드 스캔을 통해 제품의 주요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모바일 간편검색 서비스'를 자사 제품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약의약품안전관리 2.0'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이다. 글씨가 작아 제품 정보를 읽

기 힘든 노년층이나 시·청각 장애를 가진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서비스 이용은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바코드 검색' 버튼을 눌러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해당 품목의 제품명, 제조·수입업소,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 LG 올레드, 글로벌 전문가 호평 속 화질 경쟁력 과시

할리우드 로드쇼 신제품 시연  
밝기·컬러·반사 억제 성능 강조  
콘텐츠 전문가들 화질 완성도 호평

LG전자가 미국과 유럽의 영상 제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LG 올레드 할리우드 로드쇼'에서 제작자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구현하는 TV라는 평가를 받으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화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LG전자는 이달 영국 런던과 독일 뮌헨에서 'LG 올레드 할리우드 로드쇼'를 잇따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2024년부터 할리우드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의 영상 제작 전문가들에게 LG 올레드 TV 신제품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실제 제작자 관점에서 TV 화질과 시청경험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해마다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위치한 글로벌 영화 제작사 '픽처스'에서 진행된 로드쇼에는 HBO 드라마 '더 피트'의 촬영 감독 요안나 코엘로와 영화 '그래비티', '베버너트', '스타워즈' 시리즈 등에 참여한 컬



LG전자가 미국과 유럽의 영화 전문가들이 LG 올레드 TV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한 'LG 올레드 할리우드 로드쇼'에서 제작자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TV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은 'LG 올레드 할리우드 로드쇼'에 참여한 컬러 사이언티스트 조슈아 파인스가 2026년 LG 올레드 에보 시에 대해 인터뷰하는 모습. /LG전자

러 사이언티스트 조슈아 파인스 등 저명한 할리우드 영상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유럽에서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스트랜드 팰리스 텔과 세계적인 영화장비 기업 '아리'의 독일 뮌헨 스튜디오에서 행사를 진행했으며, 디즈니+, 애플TV+ 등 주요 OTT 플랫폼 콘텐츠의 영상 색상 작업을 담당하는 컬러리스트들과 영상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올해 LG 올레드 할리우드 로드쇼에서

는 역대 가장 뛰어난 밝기와 컬러를 구현하는 '3세대 알파 11 AI 프로세서'와 밝은 환경에서도 화질 손실 없이 빛 반사를 줄여주는 '리플렉션 프리 프리미엄'의 결합으로 압도적인 화질을 구현한 2026년형 LG 올레드 에보 AI(모델명 G6)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시중의 RGB LED 기반 LCD TV와 화질 차이를 비교 시연하며 정확한 컬러와 블랙을 표현하는 LG 올레드만의 퍼펙

트 컬러·퍼펙트 블랙을 강조했다. 다른 OLED TV와도 비교를 통해 빛 반사 억제 성능, HDR 및 계조 표현력, 컬러 정확도 등 월등한 LG 올레드 TV의 차별화된 화질 경쟁력을 선보였다.

아울러 LG전자는 글로벌 OLED TV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유디아에 따르면 LG 올레드 TV는 올해 1분기 글로벌 OLED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점유율 50.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시장에 출하된 OLED TV 2대 중 1대가 LG전자 제품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콘텐츠 제작 전문가들로부터 화질 경쟁력을 인정받은 점이 프리미엄 TV 시장 리더십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 백선필 디스플레이CX담당은 "화질의 미세한 차이까지 엄격하게 평가하는 콘텐츠 제작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LG 올레드 TV의 화질 경쟁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 hy, 육군 25사단에 위문금품 전달

hy가 육군 제25보병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20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1978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48년째 이어온 교류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사는 앞으로도 25사단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hy



## 신한은행, 길의료재단과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길의료재단과 상호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길의료재단은 장기간 이어온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주거래은행 파트너십을 연장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왼쪽 4번째부터)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권대수 이사장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 제로페이 가맹점, 노란우산 가입 쉬워진다

중기중앙회-간편결제진흥원 업무협약  
200만 가맹점 점주들 비대면 지원

전국 200만 제로페이 가맹점 점주들은 앞으로 비대면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에 좀더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중앙회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로페이 가맹점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안내 및 홍보 활동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제로페이가맹점 전용 노란우산 비대면 가입 링크를 지원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 앱·가맹점

채널 등에 노란우산 홍보 활동을 펼쳐 소상공인의 온라인 가입을 유도한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제로페이는 전국 소상공인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결제서비스인 만큼 이번 협약은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이 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기업·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고령 같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고자 도입된 제도다. 가입 시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포함한 연 복리 이자 적용, 압류 금지, 희망 장려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코웨이, '리버플로킹 캠페인' 성료

올해 누적 6800여명 참여  
고객·임직원 함께 수변 정화

코웨이가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펼친 '2026 코웨이 리버플로킹 캠페인'이 올해만 누적 6800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끝났다.

18일 코웨이에 따르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코웨이 리버플로킹 캠페인'은 일상 속 환경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고객 참여형 캠페인으로 강, 바다 등 수변을 달리거나 산책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는 친환경 활동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총 460명이 참여하며 환경 보호 실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임직원과 일반 시민이 함께 한 이번

캠페인은 사전 신청자에게 친환경 소재의 볼펜, 집게 및 봉투, 장갑 등 리버플로킹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수변 정화 활동 모습을 개인 SNS에 공유하며 캠페인 참여를 인증하고, 일상 속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올해는 러닝크루와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참여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코웨이 R&D센터 신입사원들도 단체로 참여해 코웨이 본사와 R&D센터 인근 수변 환경 정화 활동에 힘을 보탰다.

코웨이 관계자는 "리버플로킹 캠페인은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 보호를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환경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메인비즈協, 회원사 ESG 경영 확산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회원사 ESG 경영 확산에 나선다. 메인비즈협회는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서울(KIB A서울),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대전경제연구소와 함께 '중소기업 협력 지원을 위한 ESG 경영 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메인비즈협회



## 여경협, 유한킴벌리와 펌테크 기업 육성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가 국내 펌테크(Fem-Tech) 산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유한킴벌리와 손을 잡았다. 여경협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본회에서 유한킴벌리와 '펌테크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력의 핵심은 오픈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한 '기술 검증(POC)'이다. /여경협

##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공공택지지원과장 김중오 △신도시정비기획과장 김경은 △신도시정비지원과장 박효철 △도로투자지원과장 이상욱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약지원과장 김경현

부음 ▲류재성씨 별세, 류정화(JTB C 기자)씨 부친상 = 18일,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우면산 대성사. 02-860-3500

**오늘의 날씨**

6월 19일 (금)  
음력 : 5월 5일

수도권 날씨  
22~32°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1 | 해질 / 19:56

백령도 18/24, 파주 19/31, 인천 21/30, 수원 21/31, 평택 20/31, 연천 19/32, 동두천 20/32, 가평 19/31, 서울 22/32, 양평 20/32, 용인 21/3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신세계그룹, 청년 유통 인재 400명 양성

퓨처앤드림 아카데미 운영  
수료 우수자 채용 연계 혜택

신세계그룹이 청년층의 직무 역량 강화와 취업 지원을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퓨처앤드림 아카데미(Future & Dream Academy)'를 운영한다.

신세계그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해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세계그룹은 지방 청년 인재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생 전원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규모는 1기 200명, 2기 200명 등 총 400명이다.

교육에는 이마트, 조선호텔앤리조트, 신세계푸드, 신세계I&C 등 그룹 주요 계

열사가 참여해 유통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생들은 이마트 매장과 물류센터, 식품 제조공장, 호텔, 데이터센터 등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유통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형마트 운영 체험, 신선식품 물류시설 견학, 베이커리 제조 실습, 호텔 서비스 체험, 데이터센터 견학 등이 포함된다.

모집은 6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은 1기와 2기로 나눠 각각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교육 수료 후 우수 참가자에게 채용 연계 혜택도 제공한다. 상위 5% 수료자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차 상위 10%에게는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우리가 **원**하던 오늘

오늘을 더 맛있게

# ‘테루아 도서관’ 루시엔 르 무앙... 론에서 그르나슈를 읽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32

오래된 수도권의 고즈넉한 도서관이다. 한 권, 한 권 고유의 개성을 가진 책들이 정갈하게 꽂혀있는 가운데 하나를 골라 펼쳐본다. 시간의 흐름 속에 과거와 현재의 내가 다르듯, 책 역시 어제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와인으로 재해석해본다. 지하 깊은 셀러에는 고유의 테루아를 잘 담은 한 병, 한 병의 와인이 시간과 함께 숙성되고 있다. 와인은 잔 속에서도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며 나고 자란 곳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프랑스 부르고뉴 와이너리 루시엔 르 무앙(Lucien Le Moine)의 설립자인 뫼니에 사우마(Mounir Saouma·사진)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각 와인은 테루아와 빈티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록물과 같다”며 “다양한 부르고뉴 테루아의 도서관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루시엔 르 무앙은 뫼니에가 로템 사우마(Rotem Saouma)와 함께 1999년 설립해 부르고뉴의 그랑 크뤼와 프리미에 크뤼만을 다루는 초소형 하우스다. 소유밭 없이 포도를 사들여 와인을 만드는 네고시안인데 부르고뉴에서도 테루아를 가장 섬세하게 해석하는 곳으로 평가받고



금양인터내셔널은 지난달 루시엔 르 무앙의 공동 설립자인 뫼니에 사우마(Mounir Saouma)를 한국에 초청하여 브랜드 철학과 와인 스타일을 직접 소개하는 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있다. ‘루시엔’은 빛을, ‘르 무앙’은 수도승을 뜻한다. 중동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시작된 그의 와인 여정과 함께 양조에 있어 수행자적 태도를 모두 나타내는 네이밍이다.

루시엔 르 무앙은 매년 각 마을의 가장 좋은 크뤼를 골라 크뤼당 단 1~3배럴만 만든다. 각 빈티지와 크뤼의 개성을 가장 정교하게 읽어내기 위해 모든 과정을 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전체 생산량도 100배럴, 약 3만병을 넘기지 않는다.

뫼니에는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역사, 문화, 농업, 인간의 경험이 결합



(왼쪽부터)루시엔 르 무앙 부르고뉴 루즈 2023, 루시엔 르 무앙 부르고뉴 블랑 2023, 로템&뫼니에 사우마 샤토네프 뒤 파프 마지스 블랑 2022, 로템&뫼니에 사우마 샤토네프 뒤 파프 옴니아 루즈 2020, 루시엔 르 무앙 뽀마르 프리미에 크뤼 레 그랑 제프노 루즈 2023. /안상미 기자

된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라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와인만이 가진 고유성(Particularity)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와인 양조 과정은 세 가지 단어로 압축된다. 길고, 단순하지만, 세심하다. 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과거 부르고뉴와 론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 사용되었던 전통적 방법이다.

루시엔 르 무앙의 와인을 잔에 따르니 짙한 투명함이 없다. 오랜 시간 침전물과 숙성하고, 따로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다.

뫼니에는 “침전물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불순물이 아니라 와인의 구조와 질감, 후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이를 통해 단순한 과일 향을 넘어 테루아와 빈티지가 만들어내는 긴 여운과 깊이를 표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같이만든 오렌지 주스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진다. 냉장고에 하루 이를 보관한 주스를 그대로 윗부분의 맑은 액체만 마시면 마치 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반면 바닥까지 흔들어 마시면 질감과 풍미가 훨씬 풍부해진다. 와인도 똑같다.

그는 “자연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하지 않다. 바다에도 유기물이 있고, 숲에는 낙엽과 곤충이 존재한다”며 “와인 역시 자연의 산물로 지나친 정제와 표준화가 오히려 자연성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은 가장 큰 아군이다. 침전물과 여

떠한 개입도 없이 숙성되는 과정을 통해 와인은 자연스러운 활력과 신선함을 가지면서 은은하고 일관된 풍미를 얻게 된다.

루시엔 르 무앙과 로템&뫼니에 사우마 와이너리를 방문한다면 2024 빈티지가 여전히 배럴에서 침전물과 함께 숙성 중인 모습을 볼 수 있다. 2024 빈티지라면 다른 곳에선 대부분 병입까지 마친 상태다.

로템&뫼니에 사우마 와이너리는 이들이 2009년 론 밸리의 샤토네프 뒤 파프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다. 론에서도 역시 긴 숙성과 최소한의 개입 방식으로 와인을 만든다.

뫼니에는 “오늘날 많은 소비자들이 샤토네프 뒤 파프를 강렬함과 파워로 인식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론은 훨씬 더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며 “우리는 강렬함과 파워보다는 그르나슈가 가진 우아함과 긴장감, 그리고 테루아의 순수한 질감을 표현하는데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로템&뫼니에 사우마 샤토네프 뒤 파프 옴니아 루즈’는 론을 하나의 병에 담아내고자 했다. 옴니아는 라틴어로 ‘모든 것(All)’을 뜻한다. 5개 마을과 9종의 토양을 블렌딩했다.

그가 생각하는 좋은 와인은 좋은 책과 같다. 뫼니에는 “좋은 와인(Great Bottle)은 가격이나 희소성, 혹은 평론가의 점수로 정의되지 않는다”며 “한 권의 책을 읽은 것과 같이 좋은 와인은 계속 변화해 몇 분 후, 또는 몇 시간 후에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비유했다.



/smahn1@metroseoul.co.kr



## 문화 단신

### LG전자-홍익대, ‘피지컬 AI’ 전시로 미래세계 경험

9월 말까지 ‘행동하는 사물들’ 운영

LG전자가 홍익대학교와 협업해 미래 피지컬 AI를 비주얼 아트로 구현한다.

18일 LG전자는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 내 ‘금성전파사’에서 피지컬 인공지능(AI)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윤형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구현한 ‘행동하는 사물들: Things Around Us’로는 9월 말까지 운영한다.

지난 4월까지 진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전시 ‘누치 있는 사물들’에 이어 ‘공감지능 AI’가 ‘행동하는 AI’로 확장되는 미래 세계를 선보인다. 전시는 가전들이 사용자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공간을 구현했다. 관람객이 미래의 피지컬 AI



피지컬 AI 아트 전시 ‘행동하는 사물들’ 현장. /LG전자

세계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형 인터랙티브 전시다.

전시 공간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오브제·스탠바이미2 등 7개 구역으로 나뉜다. 각 공간에서 순서대로 ‘Personal Gravity’, ‘AI Herb Lab’ 등 작품을 전시 중이다.

이번 전시는 LG전자의 스마트TV 웹 운영체제(OS)를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 웹OS 탑재 LG TV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오성택 LG전자 상무는 “LG전자의 미래 비전인 공감지능 AI가 일상으로 확장되는 피지컬 AI의 개념을 대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렵고 딱딱한 기술 설명이 아닌, 우리 곁에서 따뜻하게 교감하는 인간 중심 AI의 미래를 감각적인 예술 콘텐츠로 전달하고자 이번 전시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부터 9월 말까지 ‘LG 갤러리 플러스(Gallery+)’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시각디자인 작품들을 무료 콘텐츠로 제공한다. /이승혁 기자 sh95@

### 정의·진실이 사라진 사회를 고발하다

이탈리아 문학 최초의 정치 소설

‘올빼미의 낮’은 이탈리아 문학에서 마피아를 직접적으로 고발한 최초의 정치 소설이다. 범죄 소설 형식을 사용하여 사회 내 권력과 부패를 비판하는 이 소설은 벨로디 대위가 시칠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단순한 범죄 조사가 아닌 권력, 침묵, 정치적 결탁의 네트워크를 파헤치는 과정을 따라간다. 사사의 작품은 개인의 무능함이 아닌 사회적 공모와 타협에 뿌리내린 정의 실패의 이유를 탐구한다.

이탈리아 문학에서 마피아의 실체를 최초로 정면 고발한 정치 소설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레오나르도 사사의 대표작 ‘올빼미의 낮’ (1961년 출간)은 당시 이탈리아 정부가 존재를 부인했던 마피아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최초의 소설로, 출간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사는 범죄 및 미스터리 소설의 개념을 포함하는 ‘로마니에로’ 형식을 사용하여 살인 사건의 세부 상황뿐만 아니라 진실이 은폐되고 정의가 실패하는 사회 구조를 면밀히 추적했다.

레오나르도 사사(1921~1989)는 시칠리아 라카무토 출신의 이탈리아 작가이자 정치인으로, 20세기 이탈리아 문학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특히 사사는 시칠리아를 권력, 불평등, 침묵, 부패를 체현하는 세계의 축소판으로 봤다. ‘올빼미의 낮’ 이후에도 그는 ‘각



올빼미의 낮

레오나르도 사사 지음/이현경 옮김/민음사

자에게 그의 것’(To Each His Own)과 ‘토도 모도’(Todo modo) 같은 작품에서 로마니에로 형식을 변주하며 마피아와 권력 간의 공모, 그리고 국가 정치에 만연한 부패를 계속해서 폭로했다.

사사는 또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문학에서 탐구했던 정의와 진실의 문제를 정치 무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그는 이성과 진실을 대변한 작가이자, 부패가 통치의 불변의 조건이 아님을 상기시킨 도덕적 지식인으로 기억된다.

번역가 이현경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어과 및 비교문학 학사, 비교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문학 번역상을 수상했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성씨대사전’, ‘이것이 인간인가’, ‘보이지 않는 도시들’ 등 다수의 작품을 번역했다.

180쪽. 1만3500원. /윤휘종 기자 yhj@

### 더핑크컴퍼니, DDP서 ‘아기상어’ 몰입형 체험전시

오는 12월 19일까지 6개월간 진행

더핑크컴퍼니가 생성형 AI와 아기상어 IP를 결합한 몰입형 체험 전시를 서울 DDP에서 선보인다.

더핑크컴퍼니는 아기상어 IP를 활용한 AI 인터랙티브 전시 ‘아기상어 비밀 초대장: 비커밍 샤크’를 1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생성형 AI와 대규모언어모델(LLM), 음성인식·합성(SIT·TTS), 컴퓨터비전(CV) 등 다양한 AI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약 500평 규모 전시장에는 7개 체험존과 20여 개의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관람객은 입구에서 AI가 생성한 ‘나만의 상어’ 캐릭터를 부여받고, 이를 기반으로 심해와 블루홀, 별빛 산호숲 등 다양한 공간을 탐험하게 된다.

주요 체험 공간에서는 AI와 실시간 대화를 나누는 상어가족 캐릭터, AI 음악 제작, AI 요리 체험, 선택형 스토리 게임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관람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화 영상으로 제작돼 디지털 굿즈 형태로 제공된다.

전시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하며 국내 관람객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도 겨냥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AMERICCINO

*Original Espresso Cream Coffee*



**아메리치노 라떼**  
Americcino Latte



**아메리치노**  
(오리지널 / 스위트)  
Americcino (Original / Sweet)



# 사기범은 긴급상황을 만든다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이 모 씨(47·여)는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던 중 휴대전화로 끔찍한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야, 나 지금 납치됐어!” 전화 속 목소리는 다급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 순간 딸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든 이 씨는 머리가 하얘졌다. 곧바로 다른 남자가 전화를 바꿔 받더니 험악한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지금 네 딸을 우리 조직이 붙잡고 있다. 당장 1시간 안에 5000만원을 준비해. 경찰에 알리면 딸부터...” 이 씨는 공포에 질려 “제발 아이 다치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애원했고, 상대는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큰 일 난다고 협박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녀는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해 지시된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전화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자녀납치를 빙자한 보이콧피싱 범죄였다. 그는 한동안 분을 참지 못하며 “평소에는 나름 침착한 편인데, 그 순간에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안났다”고 토로했다.

사기범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면 위험 신호가 올 때 잠시 멈추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사기범의 의도대로 일종의 심리적 인질 상태가 되어 버리면 안된다. 전화든 문자든 나를 깜짝 놀라게 해 당황하게 만드는 연락을 받는다면 한 번 심호흡하고 일단 멈춰 볼 타이밍이다. 어렵겠지만 순간 깊게 숨을 고르고, 곧장 대응하지 말고 하나, 둘, 셋을 세면서 심호흡을 한 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한 고령의 피해자는 은행 창구 직원의 기지 덕분에 사기 이체 직전에 피해를 면한 일이 있었다. 직원이 불안해 보이는 고객을 수상히 여겨 말을 붙이고, 상황을 알아차린 덕분이다. 이처럼 본인이 침착함을 잃었다고 느껴지면 주변의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좋다. “잠깐 전화를 끊고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기범의 기세는 한풀 꺾인다. 사기범들은 절대 피해자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 자체가 이미 수상한 신호인 셈이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범죄 역시 긴급 상황을 가장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경찰청 ○검 사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입니다”라고 권위있는 말투로 전화를 걸어와서는 굳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지금 당장 본인 명의의 모든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 두어야 한다.” 일반인 입장에서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다. 수사기관이라며 소속을 사칭하고 있으니 선뜻

의심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130만 원을 이체했다. 또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편의점에서 상품권 200만원 어치를 사서 편 번호를 넘겨주기까지 했다. 결국 그는 총 330만 원의 피해를 본 뒤에서야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했다.

경찰이나 검찰 등 공식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에게 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전화를 받더라도 ‘이건 사기다’라는 판단을 훨씬 더 수월하게 내릴 수 있다. 만약 순간적으로 속아 넘어가 돈을 송금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즉시 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적절히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범죄에 대비해 가족과 미리 암호 질문을 정해 두거나 위치 확인 앱 등을 활용해 진위를 가리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다.

전문가들은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하지 말라”, “전화로 돈을 요구받으면 반드시 가족이나 경찰과 상의하라” 등 다양한 예방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순간의 침착함과 용기가 사기를 피하는 최선의 방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 뱃사공만 많은 가상자산법



기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법’의 입법이 류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마카·MiCA)과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등 입법 기준은 뚜렷한데도, 정치권에서는 ‘대동소이’한 법안을 쏟아내며 입법의 공로(功勞)를 다투고 있어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정부위원회에 입법이 제안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29건이다. 그러나 국회 임기가 절반을 지나 후반기 국회 출범을 앞두는 2년 동안 정부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다수의 법안이 위원회에서 류표중이지만

각 법안이 포함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주된 내용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화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자지급 허용 문제, 감독 주체 등에서 각 법안 간에 차이가 있지만 가상자산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여야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은데도 입법이 지연되는 것은 입법이 확실시 되는 법안을 두고 입법의 공로를 가져가려는 경쟁이 과도해서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만 15명에 달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도 60명을 넘긴다. 전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주도했던 여당의 디지털자산 TF에서도 입법 주체만 여럿이다.

정치권이 입법의 공로를 다투는 동안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경쟁력 약화와 매출 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로 주요 원화거래소들의 매

출이 급감했는데도, 국제 표준에 뒤쳐진 규제를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던 정치권은 뚜렷한 입법 시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금융결제환경의 변화를 준비하는 금융권과 핀테크업계의 관심도 깊어지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실증을 통해 관련법 입법과 동시에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준비를 마쳤는데도, 입법 일정이 밀려나며 본격적인 경쟁은 시작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입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한다. 수수료 수입 감소로 5개 원화거래소 가운데 4곳이 적자를 겪고 있으며, 국제 표준에 뒤쳐진 투자환경에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도 입법의 공로를 다투기보다, 현실적인 입법 목표와 기한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때다.

/ asj1231@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9일 (음 5월 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거듭 실패가 계속됩니다. **60년생** 매사가 안절부절입니다. **72년생** 과로를 피하고 잠시 휴양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4년생** 뒷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  **49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61년생**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73년생** 내실을 충실히 기하는데 안전을 하세요. **85년생**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은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  **50년생** 불필요한 고집은 자제하세요. **62년생** 부부사이에 언쟁을 높이는 일이 있겠습니다. **74년생** 겉만 좋고 실속은 없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86년생** 유익이 심하게 다가옵니다.
-  **51년생** 매사가 순탄하지 못합니다. **63년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75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87년생** 의도치 않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52년생** 역경 없이 보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운세입니다. **64년생** 열심히 일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76년생** 괴로운 일 후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88년생** 귀인을 만나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  **53년생** 마음을 바르게 쓰면 큰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앞 뒤를 잘 가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세요. **89년생** 새로운 일을 취하면 성공합니다.
-  **54년생** 대가만성의 운이 있습니다. **66년생** 금전의 유통이 잘 될 것입니다. **78년생** 좋은 기술을 배울 운이 있습니다. **90년생** 땀 흘려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  **55년생** 뜻밖의 양심고백을 받게 됩니다. **67년생** 우연한 일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79년생** 하루가 다르게 번창을 합니다. **91년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됩니다.
-  **56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68년생** 새로운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80년생** 모든 운이 뚝 떨어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92년생** 가장 본심을 주의하세요. 중요한 소지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57년생** 고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69년생** 시험의 합격이나 취직은 아직입니다. **81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다음 날로 미루세요. **93년생** 운대가 좋지 못합니다.
-  **58년생** 자식들에게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70년생** 저녁에 약속이 생깁니다. **82년생** 뜻하지 않은 재물이 생깁니다. **94년생** 합격운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기쁜 날입니다.
-  **59년생** 주변사람을 한번 더 생각하세요. **71년생** 북방에서 원조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83년생**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95년생** 주머니에서 돈이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 김상희의四季 불사 참여와 가피

절에서 불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악화, 경제적 어려움, 건강 상실, 가족 불화 같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불교에서는 좋은 기운을 쌓아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불사에 참여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해법이 보이곤 하는데 그것은 곧 어떤 사람의 삶이 변화하는 시발점이 된다. 쪼인 일이 풀리고 괴로운 마음이 편안해지며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어쩌다 한번 불사에 참여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고 풀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원하는 마음으로 거듭 불사에 참여하면 삶이 달라지는 걸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참여하는 쉬운 방법은 연등 공양으로 봉축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연등 공양은 부처님 오신 날 아니어도 연중 원하는 시기에 가능하다.

원하는 내용과 간절한 마음을 연등에 담아 불을 켜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 때마다 열리는 초하루 법회나 보름 법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불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시하거나 법당을 정비하고 불상을 모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시주하는 방법이다. 법회가 있을 때 비용을 마련해서 보시하는 것도 좋은 불사의 방법이다. 절에서 법회에 필요한 것들을 가능해 두었다가 보시하는 형태로 참여하면 큰 공덕으로 쌓인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기도에 참여하거나 특정한 서원을 알리고 기도를 하는 것도 불사 참여의 한 방법이다. 불교에서는 불사 참가로 쌓은 공덕이 부처님의 가피가 된다고 말한다. 불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불사 참여로 어려운 문제가 풀려나고 편안한 일상이 열리는 다양한 불사 참여가 편안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퍼즐 퍼즐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6	7	3	8		2	1	
5		8	1				3	
8				5		2		
		4				1		
		2				3		
		9		1			2	
	1				4	8	3	
2	4			7	1	5	6	9

5	3					9	4
8	7			9	5		6
		5				1	7
	2		6				
	9		8	3		2	
				4		7	
2		6			5		
3		5	8			4	2
4	8				9		1

6	9	9	1	8	8	7	2
6	8	7	2	7	9	1	6
2	8	7	8	1	9	6	9
9	2	6	9	7	2	8	1
7	1	9	8	6	2	9	2
8	6	1	2	8	9	7	9
2	4	2	9	9	6	1	8
9	8	2	2	7	1	8	6
1	2	6	9	8	8	2	9

1	9	6	2	8	9	2	8	7
2	7	9	1	8	9	6	8	2
8	2	9	2	6	9	1	2	2
6	2	8	2	7	1	8	9	9
9	2	7	8	9	8	2	6	1
9	1	8	6	9	2	7	2	8
2	8	1	9	2	8	9	7	6
6	9	2	9	6	7	1	2	8
7	6	2	8	1	2	8	9	9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3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3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한식의 세계화, 식품업 미래의 열쇠될 것”

## 축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품산업, 첨단기술·문화 융합 산업으로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목표 향해 총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을 지로 페넬타위에서 개최한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에서 K푸드를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장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식품 시장은 기후 변화와 인구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속에서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했다”며 “식품 산업은 이제 첨단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 중”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이어 송 장관은 “지난해 K푸드는 137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올 해 수출 160억 달러 돌파라는 도전적 목표를 향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합동 K푸드 수출 기획단을 중심으로 중동·아프리카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전통주·김치·소스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다양한 K콘텐츠와 연계한 마케팅으로 글로벌 소비층을 넓힐 계획이다.

송 장관은 “AI와 푸드테크가 이끄는 혁신 그리고 한식의 세계화가 우리 식품 산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K-푸드, 반도체급 신성장 동력 될 것”

##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

문화적 가치 공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술력, 콘텐츠 더해 더 높이 비상해야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을 지로 페넬타위에서 개최한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K푸드가 맛의 장벽을 깨고 독창적인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이장규 대표는 라면, 김밥, 김치, 비빔밥 등이 전 세계 마트와 식탁에 트렌드로 자리 잡은 현상을 짚으며 K푸드가 가진 문화적 가치를 설명했다. 젠스황 엔터테인먼트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때마다 치킨, 소맥, 삼겹살을 즐긴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젠스황 CEO가 배불리 먹은 것은 한국의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이자 파트너라는 공감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앞으로 K푸드가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품목의 다양화와 기술력, 여기에 매력적인 콘텐츠가 더해져 글로벌 열풍이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푸드테크에 접목된다면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강력한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청하 기자

# “한식, 홍보 넘어 지속가능 해법 모색할 때”

## 강연

유재형 농식품부 식품의식산업과장

한식, 농업·관광 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 인재 양성, K-미식벨트 구축 등 산업 강화

해외 시장에서의 한식 경험에 국가농식품 수출로 이어지는 '식문화 산업 선순환 구조'가 본격 작동된다. 한식은 외식 브랜드를 넘어 농업, 관광 등과 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에서 유재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식산업과장은 “한식은 이미 해외에서 레시피를 직접 검색해 집에서 김밥을 만들어 먹는 단계에 있다”며 “한식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로 해법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5년 기준 K푸드 수출액은 136억 2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해외 한식당 역시 2025



년 9243개에서 2025년 1만 6539개로 80% 늘어 주류 식문화로 인착했다.

이러한 글로벌 성장 속에서 K푸드 정통성과 산업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명확하다. 무역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출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윈윈 허브 구축, 콘텐츠 마케팅, 유통 선도를 위한 디지털 혁신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한식 전파에 중점을 둔 인재 플랫폼 '수리학교'도 운영한다. 올해 민간협력형 실무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에는 최고급 과정을 선보인다. 장류, 김치 등을 잇는 'K미식벨트'를 구축해 지역 관광까지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재형 과장은 “한식이 글로벌 일대에서 복합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오는 2030년 K푸드 수출액 210억 달러를 달성하도록 산업 체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김 육상 양식 개발 등 K-블루밴드 확산”

## 강연

박수영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 사무관

마른김 등급제 등 AI 기반 스마트 혁신 나서 생산기반 고도화 등 수출 35억 달러 목표

한국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고유 브랜드 'K블루밴드'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국내 수산업 전반에서 스마트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7일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에서 박수영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사무관은 '수산식품 수출 전략'을 발표했다. ▲생산 기반 고도화 ▲가공·유통 체계 혁신 ▲수출 경쟁력 강화 ▲무역 리스크 대응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신규 양식 면허를 확대하고 급증하는 글로벌 김 수요에 발맞춘다. 또 외해 양식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인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수



온 상승에도 연중 대량 생산이 가능한 '김 육상 양식 기술'을 개발한다.

유통과 가공 단계에는 기술과 체제를 전환한다. 기존 수작업 비율이 높았던 수매·세척·숙성 등에는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오는 2027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마른김 등급제를 운영하고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유통 질서를 투명화한다.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브랜드 K블루밴드 상표를 출원하고 인천공항에 홍보관을 신설한다. 관세 장벽 등에 대응한 금융 정책과 맞춤형 지원도 마련한다. 비건, 할랄 등 국제 규제를 안내하고 품목별 특성, 실시간 현안 등을 다루는 AI 챗봇을 보급한다.

박수영 사무관은 “수산식품 수출 35억 달러를 올해 목표로 하고 있고 수출 전략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외식산업,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 강연

안병익 식신 대표

K-푸드, 글로벌 미식 주류로 자리잡아 김치·치킨 넘어 일상 음식으로 관심 확대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K-푸드가 글로벌 미식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6 푸드이노베이션 포럼'에서 맛집 플랫폼 식신의 안병익 대표가 “K-푸드의 2차 파도(Wave)가 시작됐다”며 외식 산업의 질적 성장 필요성을 말했다.

안 대표는 최근 이태원 고깃집 '정든집' 사례를 소개하며 “BTS 정국이 방문해 혼자 고기를 먹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대만,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새로운 맛집과 음식 데이터가 가장 뜨겁게 소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한 관광 트렌드도 크게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과거 패키지 여행 중심에서 벗어나 흥대, 성수, 익선동 등 골목 상권을 직접 찾는 개별 여행객이 늘



었고, 방한객 절반이 20~30대 젊은 층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 조사에서는 치킨과 김치가 대표 한식으로 꼽히지만 실제 소비 데이터에서는 삼겹살과 한우 등 K-바비큐의 인기가 압도적”이라고 분석했다.

안 대표는 현재를 K-푸드 확산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1차 wave가 김치, 치킨 같은 대표 메뉴였다면 이제는 계란장, 멸치볶음, LA갈비처럼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식의 경쟁력으로는 발효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맛과 활용성을 꼽았다. 그는 “한식은 단순하지 않다. 다양한 장류와 발효 기술을 통해 기존 미식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맛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국내 외식 시장은 약 600조 원, 글로벌 외식 시장은 약 4경 원 규모”라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 1000조 원이 넘는 글로벌 식품기업이 나와 K-푸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AI 지능화 단계 'K-푸드 2.0'으로 도약”

## 강연

연윤열 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AI·푸드테크 등 식품산업 전반 혁신 필요 글로벌 할랄·비건 시장 공략 중요성 강조

방한 관광객 증가와 한류 확산으로 K-푸드가 전 세계 100개국에 수출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식품·외식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 기반의 지능화 단계인 'K-푸드 2.0'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윤열 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에서 “K-푸드의 다음 성장 동력은 AI와 푸드테크”라며 산업 전반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 식품 수출은 136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2% 성장했지만, 라면과 김치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구조는 한계로 지적된다. 연 사무총장은 이를 극복할 전략으로 'K-푸드 2.0'을 제시했다. 그는 “1.0이 로봇을 활용한 생산라인 자동화, 즉 구구단 수준이었다면 2.0은 휴머노이드와 AI를 활용한 지능화, 즉 미분적분의 개념”이라며 “여전히 많은 기업



이 자동화에 머물러 있지만 진정한 지능화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푸드테크 사례도 소개됐다. 풀무원의 AI 식수 예측 시스템은 급식 인원을 실시간 분석해 잔반을 줄이고 있으며, 메디솔라는 2만 건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AI 비주얼 감사를 통한 이물질 검출, 스마트 콜드체인을 활용한 품질 관리 등도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제시됐다.

연 사무총장은 글로벌 할랄·비건 시장 공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60개국에 달하는 무슬림 시장에 진출하려면 원재료부터 전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K-푸드 생태계도 개발·생산·유통·소비 전 주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지금 K-푸드 황금기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AI 활용과 오픈 이노베이션,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이란 “중전 MOU 이미 서명...19일 스위스 방문 취소할 수도”  
▲“美 식민지 될 것” 반발까지...이란 정권, 미국 합의안 놓고 내부 균열 /사진 뉴시스

▲美, 자메이카와도 제3국 추방이민 수용 협상... 2주마다 25명  
▲‘이스라엘 침공’ 가자지구 사망자 7만3000명으로 늘어나

▲中, ‘인터넷 방화벽’ 이어 자금 흐름 통제 ‘금융 장벽’ 구축 중  
▲롤라 “브라질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 트럼프에 경고장



메밀면·건면 등  
여름면 라인업  
대거 공개  
L1



Life

LG올레드  
글로벌 호평  
화질 경쟁력 입증  
L2



# 정통성 지키고, 현지 입맛 맞춰... 세계에 녹아든 한식문화

##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

K-푸드, 글로벌 식문화 주류로  
김치·두부 사상 최대 성공 이끌어  
한국 정체성-현지화 조화 '비결'  
지속가능한 웰니스로 미래 준비  
영역 확장, 모방제품 문제 '과제'

K-푸드가 글로벌 식문화의 주류로  
안착한 비결은 한국 고유의 '정체성 유  
지'와 철저한 '현지화'의 조화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1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주최한 '2026 푸디  
노베이션 포럼'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  
은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 집  
권하기 위한 핵심 열쇠로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맛과 포맷은 현지 문  
화에 맞추는 정교한 '글로벌 2.0 전략'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K-푸드의 대  
표 주자인 '김치'와 '두부'다. 국  
내 식품 기업들은 단일 카테고리  
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현  
지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드  
는 컬러 마케팅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실제로 대상주식회사의  
사내독립기업(CIC) 글로벌  
별김치마케팅팀이 이끄는

브랜드 '종가(JONGGA)'는 현재 국산  
김치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신선 발  
유식품의 한계인 짧은 유통기한과 가스  
팽창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미  
주유럽 등 전 세계 14개국 900개 코스  
트코 점포에 입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건 당근 케이크 김치, 고수 김치 등 과  
격적인 현지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2030 젊은 세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풀무원은 올해 미국의 두부 현지 매  
출이 한국 내 매출을 사상 처음으로 앞  
지르는 이정표를 세웠다. 물컹한 식감  
을 꺼리는 미국 소비자의 성향을 고려  
해 물기를 빼고 단단하게 만든 '하이프  
로틴 두부'를 개발, 샐러드 토핑이나 오  
븐 구이용 웰니스 식품으로 포지셔닝  
한 결과다.

풀무원의 단일 두부 카테고리 글로벌  
매출은 현재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60가지 채소를 고품  
블록화한 글로벌 비빔밥을 선보이는 등  
'지속 가능한 식단(Plant-based)' 시장  
을 선도하고 있다.

실제 방한 외국인들의 소비 데이터에  
서도 K-푸드의 위상 변화가 입증된다.  
맛집 플랫폼 '식신'의 빅데이터 분석  
에 따르면, 방한 관광객의 절반을 차지  
하는 2030 세대들은 패키지 여행 대신  
성수, 홍대 등 골목길 노포를 찾아 'K-  
바비큐(삼겹살·한우)'와 국밥류를 즐기  
는 생활 밀착형 미식 관광 플로우를 보  
이고 있다.

이처럼 K-푸드가 농식품 수출 10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지난해 137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  
만,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산업으로 안착  
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특정 국가  
의존도 탈피와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최근 해외 현지에서 급증하고 있  
는 '모방 한식당' 및 현지 업체의 '모방

한식 제품' 난립으로 인한 정통성 훼손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이 K-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  
게 견인할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전망이  
제시됐다.

안병익 식신 대표는 자사의 맛집 플  
랫폼 데이터와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방한 외국인의 미식 트렌드  
를 정밀 분석하면서 한식의 미식 레벨  
을 하이엔드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  
언했다.

끝으로 연윤열 인천푸드테크협회 사  
무총장은 단순 가공식품 수출을 넘어  
AI 기반의 스마트 콜드체인 구축, 이물  
질 차단을 위한 AI 비주얼 검사 등 첨단  
푸드테크 기술을 융합해 K-푸드의  
제조 및 공급망 전체를 지능화·표준화  
하는 'K-푸드 2.0'으로의 체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



# 현지화로 쓴 K-푸드 신화... 웰니스·지속가능성으로 미래 공략

## 기조강연

윤명량

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장

정찬기

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 팀장

풀무원, 美 식문화 맞춰 두부시장 점령  
물컹한 식감 줄이고 단백질 함량 높여  
지속가능 식단으로 건강한 미래 앞장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에서 윤명량 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장이 '글로벌 K푸드 트  
렌드와 지속 가능 식품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포럼에서 정찬기 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 팀장이 '종가, 식품업계의 하이닉스를 꿈꾸다'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최규춘 기자

K-푸드의 글로벌 성공 신화를 만든 기  
업들은 성공의 공통 공식으로 '현지화'를  
꼽았다. 글로벌 한류 열풍과 웰니스 트랜  
드로 한식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  
국가의 문화와 음식 트렌드를 면밀히 분  
석한 전략이 주요했던 결과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지난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2026 푸디노베이션 포럼'에 참석한 K-  
푸드 선도 기업들은 세계 식탁을 사로잡  
을 수 있었던 성공 전략들을 공유했다.

윤명량 풀무원 글로벌마케팅 총괄본부  
장(부사장)은 '글로벌 K-Food 트렌드와  
지속가능 식품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  
을 통해 미국 두부 시장을 점령한 '하이  
프로틴 두부(High Protein Tofu)'의 사  
례를 소개했다. 풀무원은 미국인들이 두  
부의 물컹한 식감을 싫어한다는 것에 주

목해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물기를 뺀 단  
단한 질감의 하이 프로틴 두부로 시장을  
공략했다. 이 제품은 미국 식문화에 빠르  
게 스며들었고, 미국 두부 매출은 연간 1  
조원을 훌쩍 넘기며 한국을 앞지르는 결  
과를 낳았다.

윤명량 부사장은 "올해 미국 매출이 1  
조4000억원 규모로, 한국 두부 매출을 넘  
어서 예정이다"라며 "단일 카테고리 식품  
으로 연 매출 1조원을 넘기는 건 국내 몇  
개 없는 성공 사례이며, 이는 국가에 맞는  
식문화를 잘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찬기 대상 글로벌김치마케팅 팀장은  
'종가, 식품업계의 하이닉스를 꿈꾸다' 주  
제의 강연을 통해 현지화 전략으로 '무유

정법(無有定法)'을 꼽았다. 정해진 법은  
없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이치가 다르다  
는 뜻의 사자성어다.

대상, 세계 90개국에 포장김치 수출  
주요도시서 김치 팝업·페스티벌 열어  
웰니스 트렌드... 발효식품 주목받을 것

대상은 현재 '종가(JONGGA)' 브랜드  
를 통해 포장 김치를 전 세계 90개국에 수  
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김치 수  
출액(약 1억6000만 달러) 가운데 종가 김  
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정찬기 팀장은 "농심 신라면이 1조를  
파는데 37년이 걸렸지만, 삼양식품이 불

닭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12년  
만에 가능했다"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SNS 채널을 통해 글로벌 확장 속도  
는 훨씬 빨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가는 해초 김치, 고수 김치 등 다양한  
제품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팝업스토어, 김치 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형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며  
전 세계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K-푸드의 미래를 준비  
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자연적이고 건  
강한 한식의 식단이 더욱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상과 풀무원  
역시 웰니스·지속가능의 식문화 트렌드로  
'K-푸드 3.0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정찬기 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웰니스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발효식품, 김치  
를 비롯한 한식의 건강한 먹거리가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며 "한국의 경제적  
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글로벌 콜드체  
인 이 업그레이드 되면 K-푸드 역시 반도  
체 만큼 엄청난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내  
다봤다.

윤명량 부사장은 "앞으로 10년 후 어떤  
음식으로 세계에서 한식을 알리느냐에 대  
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10년 뒤 미래에  
도 K-푸드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음식  
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풀무원이 앞장  
서서 지속가능한 식단을 알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메트로 한줄뉴스



▲박지성 "멕시코전 '키 맨'은 이강인... 압박 풀어  
줄 선수"  
▲패배 잊은 멕시코, 한국전 대비 최종 훈련... "한  
국, 훌륭한 상대" /사진 뉴스스

▲통계 업체의 예상... 한국, 멕시코전 승리 확률  
24.8%  
▲롯데, 아시아쿼터 교체 단행... 교야마와 작별하  
고 이이무라 영입

▲여서정·허웅 등 기계체조 대표팀, 'AG 전초전'  
아시아선수권 출격  
▲가나 첫 세계유산 '성체' 기후변화 대응 한국이  
돕는다